

#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세미나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선교, 과제와 전망-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13:30-15:30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 조직위원회

주관교회 | 명성교회

## 인사말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대표대회장  
명성교회[지역사회영역 주관교회]담임목사  
**김삼환**

할렐루야!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의 학술행사로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전망해보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세미나를 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지역사회를 비추는 빛이요, 지역사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누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선교만이 아니라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선교, 삶의 선교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복지기관을 통해 사회봉사를 행하는 일은 그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의 차원을 넘어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마25:35-40)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심오한 선교적 차원을 가지는 일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그 자체로 선교입니다. 행동의 선교, 섬김의 선교, 삶의 선교인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며, 금번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풍성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교회의 존재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21세기의 선교는 선포의 선교와 더불어 섬김의 선교를 함께 행할 때 온전한 선교가 될 것이며, 날로 패역해 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섬김으로 다가가는 디아코니아 선교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리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성령의 선교에 참여하는 귀한 잔치인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지역사회 세미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주제강연과 논문발표와 논찬을 맡아주시고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정표

1.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13:30-15:30
2.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시간	순서	내용
13:30~13:33	인사의 말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디아코니아 코리아 대표대회장)
13:33~13:36	축사	손인웅 목사(디아코니아 코리아 상임대회장)
13:36~13:40	축가	혈몬의 이슬 중창단 (명성교회)
13:40~14:00	기조강연	<b>“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선교”</b> - 박종삼 교수(송실대, 전 월드비전 회장)
14:00~14:25	주제발표 1	<b>“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b> - 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14:25~14:45	논찬	정영일 국장(이랜드복지재단) 이재원 관장(종로복지관)
14:50~15:15	주제발표 2	<b>“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b> - 이승열 교수(총회 사회봉사부)
15:15~15:30	논찬	박인갑 교수(실천신학대학교)

## 목차

<b>기조강연</b>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 - 박종삼 교수(송실대, 전 월드비전 회장)	5
<b>주제발표 1</b> <b>좌장 송정부 교수(상지대학교)</b>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 - 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19
<b>논찬</b>	
정영일 국장(이랜드복지재단)	48
이재원 관장(종로복지관)	58
<b>주제발표 2</b> <b>좌장 송정부 교수(상지대학교)</b>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 - 이승열 교수(총회 사회봉사부)	68
<b>논찬</b>	
박인갑 교수(실천신학대학교)	100
<b>질의응답</b>	

##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

박종삼 목사(송실대학교 명예교수, 글로벌사회봉사 연구소 소장)

### I. 서론

금년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대회 개최의 여러 목적들 중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한국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로 보다 활발한 지역사회선교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선교의 지평선’을 지역사회 내에서 확장해 나가는데 있다고 본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지역사회 내에 확립하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에 대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적 이해와 선교를 위한 일치와 실천에서 재고찰해 보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가 1885년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 후에 한국교회의 선교는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복음선포, 기독교교육, 기독교사회봉사,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로 기독교 선교를 최악의 상황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실시해 왔다. 최초의 한국 기독교는 전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갔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나갔다. 한 기록에는 1888년 한국의 세례교인은 25명에 불과 했다. 그해 외국선교사들이 전부 모여 기도한 제목은 “주님, 을 한 해 동안 조선에 세례 받은 교인 30명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였다고 한다.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폭발운동’으로 인해 크리스찬 인구는 23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해방과 6.25 사변후 한국의 교인은 100만 명이 되었으며, 1970-1985, 15년 사이에 1,000 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매 10 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 대형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최대 20개 교회 중 한국교회가 다섯 개나 포함 되어 있었다.

1990년 연 평균 10.8%의 성장을 보이다가 1991년 연 평균 성장율이 5.8%, 그리고 1992년에는 4.0%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한국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1991년 한국개신교 신도 수는 전체인구의, 18.6%를 차지했으나 1994년에는 18.2%로 0.4% 정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성장의 둔화와 감소추세에 대하여 한국교회 지도자, 신학자, 목회자, 종교사회학자, 평신도 등이 모여서 일련의 학술 대회와 연구가 계속 되었다. 교회적, 신학적, 종교사회학적 연구결과들이 자적인 바는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교회주의와 교회성장주의에 몰두한 나머지 붕괴되어 가는 가난한 지역사회를 도외시 했고,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변해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한국 개신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제 종교의 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1990년 이래 한국 개신교는 지역사회선교의 중요성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 내의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 (탁아소, 유치원, 등), 청소년 복지 (독서실, 청소년센터, 장학사업, 여름캠프, 체육/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청소년 가장 돕기 등),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학교, 점심프로그램, 가택방문사업, 독거노인 보호사업 등), 그리고 장애인, 빈곤 가정, 다문화 가정등을 돕는 ‘기독교 사회봉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 운동 (예; ‘사랑의 현장 갖기’ 장로교 통합교단)을 펼쳐 나갔고, 일부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체계있게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면서 정부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시민사회의 지역복지 참여는 개신교의 지역사회 봉사가 매우 빈약하고,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역봉사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어 개신교는 그 신뢰성을 상실하기 시작 하였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서 어느정도 분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효율성도 평가될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면서 개신교는 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의 신뢰성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는 가톨릭, 불교 다음에 개신교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이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 하였다. 구한말, 일제통치, 남북분단, 6.25 전쟁과 전후 시대에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시기의 교회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이룩한 하나님 나라건설의 도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의 결과로 풍요로운 사회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정책하에서도 한국교회는 하나님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데 매우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선의 상황하에서 최악의 선교결과를 산출”한 한국교회는 ‘최악에서 최선을 이룩한’ 선배 지도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교훈이 많다.

한국 개신교의 사회선교는 오늘날 많은 성경적, 신학적, 기독교 봉사적 측면에서 지난 20여년 간의 봉사경험을 통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사회내에 있는 지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몇 가지 열거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독교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지역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학적, 신학적, 영적) 가 매우 부족하다. 셋째, 지역사회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 밖의 공적 사회복지 체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용에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지난 30여년 간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개 교회주의와 교회성장 제일주의가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에 끼친 부정적 선교영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위한 교회지도자 (목회자, 교단 지도자 등)와 평신도들이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 수행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역사회에 건설하기 위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의 틀, 곧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을 시급히 모색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지역사회 선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문제를 위해서, ‘기독교 디아코니아’를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둘째 문제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영적, 성경적, 신학적 해석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셋째, 가난한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는 정부나, 민간, 시장(기업)의 지역사회 복지정책, 프로그램 등과 협력하는 ‘공공신학적 접근’의 이해와, 그리고 다섯째, 신학 교육에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감당할 교역자의 교육과 실제로 세상에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가진 ‘평신도’ 개발과 훈련의 필요요성이 절실하다. 지역사회 선교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에큐메니칼적 교회의 일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독교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써 지역사회, 모든 권세와 정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 밖, 사회의 가난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성경적, 영적 해석(공공신학과 지역의 공공 교회), 그리고 신학생들의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봉사)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 평신도신학을 통한 평신도의 디아코니아 역군으로서의 교육과 훈련 (교회 교육-‘디다케’),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등이 본 강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II. ‘송파 세모녀 자살참극’ 과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2년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놓고 자살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송파구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책임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참극에 대해서 이미 잊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것은 ‘지역사회 디아코니아’가 왜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송파지역사회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에서 11번 째로 부자이고



국민의 GNP가 30,000 불 (1960 - \$36.00)에 이르는 나라에서 이런 참극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송파구는 몇 년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세계에서 수상한 풍요한 지역이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등 가난한 국민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및 전달체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송파구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기관은 지역사회내에서 복음과 경전이 말하는 '생명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었기에 이런 비극을 일어나게 했었는가? 특히 교회제도에 속한 '지역사회내의 속회, 구역회'는 자기 구역의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로타리, 라이언즈 등 국제 봉사클럽은 무엇을 했으며, 송파의 지역 주민들은 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는가? 지역사회 복지관 (예; 월드비전 송파 복지관 등)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지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기에 이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말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에 도래하여야만 하는가, 왜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 안에서 가난한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외에도,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생명, 특히 가난한 이웃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주며, 풍요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독교적 명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논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

가장 심각한 한국교회 (세계교회 포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나누지 않고, 교회 홀로, 그리고 기독교인 홀로 사용하거나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상기 시켜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자기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 지역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축복받은 한국교회가 '세계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써, 한 통계보고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매일 300명 씩 죽고 있는데, 이는 300명 (세월호 희생자 302명)을 태운 배(세월호)가 한 척씩 침몰한다는 것이 되고, 300 명의 어린생명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 들이 매일 사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현실이다. 지구촌의 지역사회를 모두 책임지지는 못 할 지언정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생명마저 돌 볼 수 없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선교를 도외시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감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주장할 수 가 있겠는가? 오늘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학술대회가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 III. 디아코니아의 선교적 개념

근래에 이르러 교회의 사회봉사, 사회선교와 관련지어 '디아코니아 신학'이 한국에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가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선 상에서 어떤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신학 운동의 하나이다. 디아코니아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디아코니아 신학자들의 주장과 견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송영우, 2015)

“디아코니아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를 시중드는 사도직인 봉사와 함께 이웃과 세상을 긍휼과 정의로 섬기는 것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섬김과 함께 섬김의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약한 지체를 서로 함께 돌봄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나라의 실현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활동이다.”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의 선교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5, p.9)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선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특히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디아코니아 신학'을 연구하고 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을 소개하는 신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으나, 제3세계의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삼, 2010)

오늘 우리는 신학적 논의 보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하여 교회의 선교가 '복음을 선포' (케리그마)하고 교인들로 선포된 복음 입각하여 교육/양육 한다면 (디다케), 이 결과로 반듯이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교회의 봉사' (디아코니아) 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을 교회와 교인들이 반드시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안에 능력이 있어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가난한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봉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질문한 복음의 책임문제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복음선포아 복음에 대한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가난한 이웃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교회와 개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디아코니아는 선포된 복음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선교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대계명이 디아코니아의 성경적 기반을 준다고 생각한다. 디아코니아는 말의 신학이 아니고 '행동의 선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봉사)

근래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기독교 사회봉사가 지나치게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 사회복지(기독교 사회봉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기독교인의 사회봉사가 성경적/신학적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선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래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적인 교회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일반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들, 실천가들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방법을 교회에서 부탁받고 교회에 사회복지 방법을 소개하는 역할과 함께 자신들의 성경적 이해와 신앙에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 이론을 교회 사회봉사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아직도 디아코니아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봉사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행히 기독교사회복지 학자들 사이에는 신학을 전공하고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여 튼튼한 성경적, 신학적 기반을 나름대로 정립하여 그야말로 토착적 기독교사회봉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때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교회사회봉사, 교회사회복지와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실천하였다. 곧 초대 한국교회와 신도들은 ‘케리그마’와 함께 ‘디아코니아’의 실천이라는 순수한 복음의 명령에 따랐다. 오늘날 한국에 ‘디아코니아 신학’을 정립하려고 할 때 이러한 토착적인 복음 실천 운동이 구한말, 일제 하, 남북분단 하, 그리고 한국동란 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해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고유한 토착적 문화, 역사, 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토착적 ‘디아코니아 선교’가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가난해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의 아동복지를 이끌고 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의 80% 이상이 기독교 평신도들이었다. 나는 이것이 토착적 디아코니아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노인, 미망인, 청소년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시설보호, 방문보호를 창의적으로 시작 한 한국사회복지 개척자들은 모두 디아코니아를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1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어도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는 현재 70여만 명인데 이들 중 적어도 30% 이상이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들 대부분이 평신도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전문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선교적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어떤 디아코니아적 신앙을 갖고 직접, 간접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그들의 신앙에 따른 것이며 모든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 및 실천가들이 세속적 전문이론과 기술에 입각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인 교회 밖에서 ‘생업(직업)’의 차원에서 사역 하도록 불렀다면 이는 곧 ‘디아코니아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디아코니아의 본질인 ‘실천적 선교’, ‘행동의 케리그마’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신학자와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지역사회안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일치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아코니아 신학자들은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 실천가들이 한국 선교 100여년에 걸쳐 토착적으로 쌓아 올린 터전 위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적 조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디아코니아 신학은 누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디아코니아 신학을 모르는 기독교 의사(또는 비기독교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디아코니아 신학을 갖고 있는 무능한 의사의 행동보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능한 의사에게 디아코니아 신학을 알려 주는 것은 교회의 ‘다다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V. 지역사회에 대한 성경적, 영적 이해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이해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통속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이해하에서 영적인 교회 선교공동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아무런 선교적 책임감도 갖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교공동체의 태도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오해, 곡해, 폄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배척받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다. 지역사회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관이며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교회가 지역사회에 불편한 문제를 초래시켜 준다고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국 교회와 교인이 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적 문제이고, 신학적 문제이며,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의 문제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1) 함께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 있어야 하고, 2)그들이 더불어 함께 산다는 구체적인 공동의 삶의 활동이 있어야 하며, 3) 삶이 영위되어가는 데 필요한 질서와 시설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세가지는 지역사회를 이룩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본다. 또 다른 사회학자의 정의에 따르(Rockwell Smith) 지역사회란 1)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2)이들은 같은 경제적, 사회적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살며, 3) 같은 감정적인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정의의 의하면(G. A Hillery)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밑에서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집단’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실천하는 ‘선교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위해서는 지역의 존재와 기능에 대하여 영적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



며, 또한 신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지역사회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적 기반이다.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출생하고,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교인으로, 사회의 기독교적 청지기로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나가는 영적인 거룩한 생명의 현장이기도 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선교를 펼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지역사회내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펼치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다.' 지역사회내의 모든 생명을 구하려고 사역하시며,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교회 선교의 현장으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지역주민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로써 지역사회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는 가난하고 압제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명봉사를 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회악에 대한 대안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하나님께로 돌아 오도록 선교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교회와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하나님과 함께 지역 주민을 섬기고 전도하는 '생명의 에덴동산'을 구현하는 장소이다.

위대한 개인은 위대한 가정을 낳고, 위대한 가정은 훌륭한 지역사회를 세우는데 공헌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내의 개인 전도, 가족, 집단, 문화의 기독교적 변화는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지역사회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흠어지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나가야 하는 선교의 '종착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 VI.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와 교회 밖의 인간봉사 제도와 활동

사회와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교회의 신학이나 사고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된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에서 높은 벽이 되어 지역선교에 장애가 되어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 지역 교회는 지역주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각오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는 일종의 세속적 자선이나 구호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는 선교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생명구원의 사업에서 교회가 독단적으로 디아코니아 선교를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있는지는 깊은 신학적 고찰이 요구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동기/능력/기회(Motivation, Capacity, Oppor-

tunity: MCO)를 교회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돕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라는 이념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이런 제도가 교회 밖에서 생겼다고 교회가 등한시 하는 경향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이해를 한국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나 정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속사회의 정부나 시민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남용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 교인들을 준비 시켰다.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지역사회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직장, 단체 등에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도록 선교적 활동을 명령하셨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소금과 누룩의 선교적 작용'은 한국사회에서 평신도들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교육계, 의료계, 복지계 등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한다는 것은 곧 사회 구석구석에 잠입하여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하나님의 정치, 경영, 학습 등을 하도록 '누룩'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비록 사회복지의 내용(질)은 매우 미흡하지만 사회가 책임지고 가난한 이웃을 책임져 준다는(기독교적 준거) '사회안전망'을 펼쳐나가고 있다. 1999년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 혁신적인 보장법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기 까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의 세계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관여해 왔는지 우리는 신앙적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들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교인들도 포함되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도 포함한 국민의 민주적 결의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우리 정부나 사회의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외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세상의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사회개혁). 교회가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연계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곧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가난한 이웃들을 적법한 수혜자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선교적 책임은 분명해 진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교사업에서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착한 행실'이다. 신학적 의미와 해석은 이웃의 생명이 구해진 뒤에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는 교회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개념이 아직도 구조, 구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

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조, 구호만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 VII. 개교회주의의 극복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에큐메니칼적 일치의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체제의 확립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실천의 실패로 교회성장의 둔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추락 시켰다는 사실은 교회와 교인,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전도에만 힘쓰고 기독교의 본질인 생명구원의 사회봉사를 등한시 했다는데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했다고 본다. 특히 교회가 개인의 기복신앙을 독려하고, 개교회적 교회선교 프로그램만을 강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에서 멀리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적 물량주의가 교회에 스며들었다. 대형교회, 부자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등에 대한 가치적 선호는 이미 한국교회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인을 확보하기 위한 세속적 경쟁은 (예, 노인학교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는 하나의 '조소거리'까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의 선교 역사의 흐름에서 이러한 선교기관의 난립과 쓸데없는 경쟁은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반선교적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 '에큐메니칼 운동'등 교회 연합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교회들 사이에서도 한 지역사회 내에서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선교의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펼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것은 한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협력적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내의 빈곤 가정을 도우려고 할 때 지역사회의 개교회단위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많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통일된 선교전선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이코니아를 전개하게 되면 더욱 효율적인 선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에큐메니칼적 다이코니아 교회선교단체는 정부나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사회개혁적 선교차원에서도 막강한 정의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회의 일치가 지역사회 자치정부, 시민사회와도 일치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역사회에 건설하는 하나의 강력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리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봉사는 교회를 연합시킨다'는 신학적 주제가 한 에큐메니칼 대회의 주제로 선택된 적이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교리를 중심으로 분리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 온 것이 한국교회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전 한국의 대표적 교회들 (예, 사랑의 교회, 명성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 교회 등)이 함께 모

여 '한국교회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자는 의견이 단 시일, 단 시간 내에 일치의 기적적 '교회 일치'가 이루어졌다. 참석 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100 여년에 걸쳐 교회통합을 시도했으나 교리적 차이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웃을 봉사 하기 위해 통합'하자는 통합의 의견에는 아무도 반대 하지 않고 일치를 이루었다는 감격된 신앙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오늘의 기독교 EXPO도 이러한 교회 통합의 결과이다. 지역사회 다이코니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역사회내에 세우겠다는 통합적 일치의 신앙고백이 지역교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본다.

개교회주의란 무엇인가?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여 교회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을 말한다 (노치순, 1989, 40) 가톨릭 교회, 불교와 같은 중앙집권적 집합교회와는 달리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총회나 노회의 통치권은 무의미한 상태이다.

한국개신교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성장 제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교회단위의 배가운동과 부흥운동을 촉진하며 교회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속적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도 많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치된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교회주의의 대형교회는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의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교회가 파송하지 않는 가난한 농어촌 교회의 절실한 지역사회 다이코니아는 돕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가난한 지역주민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에서 개교회주의를 고수하는 개교회는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일치를 이룰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개교회 위주의 교회활동을 탈피하고, 한국교회, 지역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특히 농어촌 교회의 시급한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를 가난한 목회자 한 분에게 맡기지 말고 목회자들과 교회지역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의 선교를 위해 모든 교회가 공동의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임할 때가 왔다고 본다.

## VIII.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회지도자의 다이코니아 교육과 교회사회복지 교육의 필요성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다이코니아 선교가 빈약한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신학교 교육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육과 훈련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오랫동안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 않는 교회를 위한 신학 교육은 자연히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교육의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된다. 이것은 한국 신학교육에서 커다란 복음선교적 착오를 범하고 있는 전례가 되어 왔다. 복음의 핵심인 전도와 봉사의 양대 축에서 전도만 교육하고 봉사에 대한 교육은 무시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속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신학적, 교회적 선교과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어 왔는지는 신학계에서 쉽게 분석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이 ‘디아코니아’ 신학적 차원에서 시급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가 디아코니아 신학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 확신이 없을 경우, 그 교회의 평신도는 디아코니아 선교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이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소극적으로 진행케 되는 결과를 산출 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목회자의 디아코니아 선교에 대한 확신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 IX. 교회의 평신도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의 활성화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선포와 (케리그마), 교육/양육 (디다케)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가난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사회에 파송하는 기관이다.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와 교육은 평신도를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청지기로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 있다. 이 변화된 디아코니아 역군의 참여와 도움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이 기다리고 있고, 가난한 이웃과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평신도의 파송을 기다리고 있다.

디아코니아의 근원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도록 교회가 임명한 집사직에 있다.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평신도는 성직자에 종속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교회기능의 중요한 ‘세례식과 성찬식’은 전통적으로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사실이 성직자를 교회안에서 상위에 놓고 평신도를 하위에 놓았다. 종교 개혁에서 ‘만민 제사장직’ 신학을 주창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등한 역군임을 주장하였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에서 평신도는 성직자보다 더 일선에서 직접 가난한 이웃을 보호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이다. 교회의 평신도 중에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귀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의 특별한 이론적 기술적 준비가 없어도 언제이고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들이다. 그 예로, 의사, 간호사, 약사, 교육자, 기업가, 상업종사자, 건축가, 사회사업가 등 하나님나라의 귀한 디아코니아 자원이 교회에 쌓여

있다. 다만 교회와 성직자가 디아코니아 선교를 등한시 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생명디아코니아 자원이 교회 안에서 쓸모없이 허비되고 있다. 누룩이 창고안에만 쌓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회가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수행을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의 역동적 디아코니아 명령에 복종하여 교회 밖에서 활발하게 디아코니아 선교를 전개하여 왔다. 지역사회내의 기독교 고아원, 양노원 등의 설립과 운영은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 선교에 대한 ‘복음의 실천’을 등한시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계통의 병원들과 대학, 중고등 학교가 교회의 디아코니아 현장이 되지 못하고 세속화의 과정을 겪는데도 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미 한국교회에 소개된 ‘평신도의 신학’을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차원에서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평신도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모범적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 NGO 들의 국내외에서의 활동은 복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가 교회 밖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디아코니아 신학의 정립은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토착적 신학을 창안해 내야 할 것이다.

### X. 결론

본 강연의 주제는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교회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온 원인들을 성경적, 교회사적, 디아코니아 신학적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 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해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앞으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즉 디아코니아 신학의 미완성, 교회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미비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디아코니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평신도의 개발을 위한 교회대책의 방향 등을 제시 하였다. 특별히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수립하기 위한 ‘공공신학’의 이해를 통한 선교의 지경을 교회 밖의 사회까지 확장시켜야 함을 피력하였다.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는 교회가 지역사회내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가 지역사회에서 ‘우리목사’라고 불려지도록 교인과 함께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이웃의 ‘돌봄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난한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가 우리의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강연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포함한 그의 선교 사명을 선포한 성경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우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 (눅 4:18-19)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의 “교회중심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 중심으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로 잡는 과제 로부터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

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당위성

#### 1. 하나님의 명령인 사회복지활동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서 그 존재 의미를 확인하며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속에서 변질과 변화의 반복의 역사 속에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 선상에 있다는 개념 사상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까지는 버릴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 이웃 사랑의 현상인 사회복지활동은 일반사회복지와는 그 개념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일반 사회복지의 평등사상에 이거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조건의 개선활동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회복지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인간의 존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적 접근인 것이다. 즉 일반 사회복지가 사회적인 접근방법이라면, 교회의 사회복지의는 신앙적이며 영적인 접근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사회복지와는 달리 교회의 사회복지란 사회적 치료와 지원 등의 상태를 훨씬 초월하여 완전한 통전적 치료, 즉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그 영적인 부분까지 치료의 대상으로 그리고 적응과 회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사회복지의는 “너와 나”의 관계성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의는 “너와 나, 그”라고 하는 삼각관계로 성립된다고 하는 것에서 그 차이를 갖고 있다.

우선 성서에서의 사회복지사상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구약에서의 사회복지활동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사회적 약자 즉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

한 자, 날뽀팔이 들, 종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을 찾아 감으로서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음을 구약성서에서 배울 수 있다. 한편 신약에서 나타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그 사상을 살펴볼 때, 구약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승·승화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주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요 이 땅에서의 그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곧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언급하여 이는 제자들 뿐 만이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인들 까지도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여, 즉 주릴 때에 먹을 것, 목마를 때에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벗었을 때에 입을 것,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 봄 등과 같은 것들을 자기보다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행위 즉 사회복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도 사회복지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저서 「사회사업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에서 교회는 사회복지의 낳은 어머니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의 불일치로 사회복지의 세속 사회로 넘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사회복지의 주체였으나 사회복지가 세속화되어 감에 따라 그 주도적 역할이 축소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복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의해 제공된 사회복지활동의 범위와 정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가족과 이웃에 의해 제공된 비공식적 도움을 제외하고 조직화된 사회복지활동은 근대 전까지는 교회당국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있었다.

한편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복지활동도 1884년에 내한한 알렌(H. Allen) 선교사가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왕족 민병익을 치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는 사회복지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하였고, 사회복지의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알렌의 민병익 치료의 성과로 고종 황제를 비롯한 조정과 사회 전반에 큰 호응을 받게 되어 「광혜원」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이 설립되었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초기 선교사들도 1885년 이후에 입국하여 교회 설립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과 모자원 등 사회복지활동도 열심히 하여 고난당하는 한국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복음전파와 사회복지의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적인 선교개념으로 복음화 작업을 통한 인간회복 작업은 탁월한 선교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특징

### 1) 기독교사회복지의 고유성

일반 사회봉사와 지역사회복지활동은 그 개념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일반 자원봉사의 기반이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활동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명령이요 사명에 대한 순종이란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영적인 축복 혹은 상급이 있다는 점이 그 개념상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의무감과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현외성, 1996 : 1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복지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활동이란 기독교인이나 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선적, 교육적, 전문적 또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독교적 실천 활동이나 정책을 말한다.”(김기원, 1998 : 489)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효율성과 효용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웃 사랑 실천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극치는 인간을 사랑하시 그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의 출현과 인간을 위한 죽으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더욱 실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의 공통성과 특이성은 무엇인가(현외성, 1996 : 39-40). 먼저 공통점은 양자가 이웃 사랑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한편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는 방법이나 기술 혹은 대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의 역사적인 산물이다. 즉, 오래 전부터 자급자족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혈통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종교적 신앙심에 의거하여 발달하여 온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사업의 실천 주체가 교회, 신자, 교단 등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성서와 교리에 의하여 실천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와는 다르다. 즉 일반 사회복지의 종교 교리와는 다르게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②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일반 사회복지의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가 사람들의 물질적·정신적·심리적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사회복지활동 활동은 영적인 구원과 구원받는데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③ 일반 사회복지의 관심은 제공되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있다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사회복지의 실행하는 교인이나 교회, 교단 등의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전도와 이웃 사랑을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일을 행한 자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과 사회복지를 통하여 얻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위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실천되는 것이다.

## 2) 기독교사회복지(교회)의 사회적 책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강령이다. 이 성경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사랑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형제적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요한1서 4:20)는 말씀과 관련이 된다.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으로 대별된다.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행동이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의 문제가 불합리한 사회 환경에서 일어난다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환경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만 경건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아가페’란 구체적으로 ‘작은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개방성’이라고 한 하인리히 오토(Heinrich Ott)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김광식 역, 1985), 교회는 개인의 윤리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보다 커다란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회가 개인적 관심의 요소들을 모아 박애주의에 입각한 조직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갖는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종의 자세(servanthood)’를 취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간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간이 처해 있어야 할 상태의 신앙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조직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현대에 들어서 기독교가 1차적인 사회복지 책임을 국가에 이양하였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활동을 감시, 비판하며 국가가 실시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또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적인 사명인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영속적으로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현대 사회 문제의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사회복지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사업 개입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제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 서비스, 즉 교육, 상담, 위기 개입,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환경개선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구조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나아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옹호활동도 할 수 있다.

## 3) 기독교사회복지(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독교사회복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된 미션(전도)의 하나의 행위로서 디아코니아(봉사), 혹은 사회복지로 파악된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그 기본형인 초대교회 형성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J. C. Hoekendijk는 「봉사의 역사는 그 원형이 잘못 되풀이해 갈 유혹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시대,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기에 시작됐다. 우리들은 암흑에 들어간 사람과, 50년 혹은 100년에 걸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중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戶村政博譯, 1966)라고 하고 「시기, 경과, 방법, 떠맡은 사람 등을 완전히 해명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초대교회 형성에 있어 디아코니아의 의식화를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 트리오(사도, 예언자, 교사)의 성립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전문종사자와는 별개로 집사(Deacen)가 어느 정도의 봉사나 복지, 원조 등의 역할 분담자이었을 것이라 추측도 가능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사의 역할분담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디아코니아의 구체적 내용, 행동형태가 다음에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 디아코니아로서의 색채는 거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W. A. Vissert Hooft는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봉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봉사인 것이다. 신약성서의 교회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싸운다는 의미의 넓은 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행정적인 것에 관해서 혹은 사회상태의 현상에 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만든 공동체, 예를 들면 가족, 주인, 노예 등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다.」(菅 圓吉譯, 1960)라고 했다. 즉 「암흑기」 당시의 디아코니아는 개인의 문제이든, 혹은 집사의 행동에 수반된 것이든 어느 쪽으로든 이해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그 범위도 교회 집단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이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리, 공동의 소유 등과 같은 성경구절이 의도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교회 교인들은 실감나게 느끼고 있으며, 이 사실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개인생활을 초월한 커뮤니티에 관계해 가는 데에 있어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디아코니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생(生)과 사(死), 혹은 부활을 포함한 전존재에 있는 것이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케리그마(선교), 코이노니아(교제), 디다케(교육) 등과 혼연일체가 된 미션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션을 지행하고 있는 디아코니아 혹은 그 관련 개념은 초대교회 이후부

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도 그 일부로 포함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원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초대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기독교 역사를 통한 「유혹의 연속」이었으며 그 징후는 이미 교회형성 가운데 보였다. 집사직의 형식화, 교회와 교인, 혹은 교회 간의 연속성의 상실, 박애, 베품, 자선적 몸짓 등과 같은 현상은 교회형성과정에서 돌출 되었다. 또 이러한 「유혹」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중세 교구(敎區)형 교회 아래서는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중세에는 교회가 많이 건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원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배척하는데 작용했던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구(敎區)형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중세 공동사회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었지만 어딘가 생활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축출한 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라인홀트 리버는 「교회가 순수한 개인주의적 자선의 움직임에 스스로를 한정하여, 인간의 권리를 확립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 4) 지역주민의 생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본질

기독교사회복지는 곤란에 처하여 있는 이웃의 존재에 대하여 재산이나 생명 등을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가치를 나타내어, 너(그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러한 점이 기독교사회복지의 근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 및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활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현실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로마서 8장 35절).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이를 저해하는 것과의 다툼이 있게 하며, 기독교 진수를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삶의 자세가 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며, 현재 보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요한 일서, 4 : 20)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방관자적일 수 없다.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웃을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웃은 지금 자기 자신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 기

구 가운데 의식주 곤란, 보장이 부족한 사회생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환난, 곤란, 박해, 위기로부터 탈출을 원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그리스천은 위기, 곤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은 물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나쁜 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천들은 성서에 입각한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그리스천들이 전개하여야 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고백한다. 이러한 역사관 속에서의 성서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와(and)’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equal), 동일성 관계로 보는 것이다. 즉, 그리스천은 이웃의 존재를 그리스천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가면’으로 경외하고, 시간적 너(그대)와의 관계 가운데, 이를 초월하는 영원한 너(그대)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상을 생각하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사랑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며,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키는 것들로 표현된다. 필히 ‘무언가를 위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게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천은 복지선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실천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스천 앞에 존재하는 이웃은 단지 무력해 보이는 영아일지라도, 또 어떠한 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활동은 그리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며, 신앙의 열매인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이에 의하여 자유함을,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의 사회적 증거인 것이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하는 사회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는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본질하고도 차원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활동을 움직이는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 5)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문제의 발생원인

지역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대별하면 대체적으로 2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약점에서 찾는 행위자 책임론과 사회구조에서 찾는 체계책임론이다. 행위자 책임론이란 예를 들면 슬럼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업실패의 원인을 공부에 대한 무관심, 가족의 능력 부족,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등 학생 개인과 부모의 결함에서 찾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정부, 경제계, 계층구조,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이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만들고, 문제해결방법도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잘못된 저지른 개인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진보를 유기체의 정화과정으로 또 사회적 약자의 도태과정으로 파악한 사회적 다윈주



의적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책임론에서는 학업실패의 원인을 과밀학급, 비능률적인 교과과정, 학교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교사 자질 부족 등 교육환경에서 찾는다. 체제비난의 입장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과실과는 무관한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사회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제책임론에 편향되면, 개인이 야기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위험이 있다. 순수하게 심리적인 이유로 타인에 해로운 행위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맑스주의자는 사회문제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행동의 부적응 즉 일탈행동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전자에서 비롯한 사회문제의 종류는 노동문제, 실업문제, 빈곤문제, 주택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결함의 주된 내용은 ㉠ 자본주의 경제가 내포하는 모순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한편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의 성장·발전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경쟁, 곧 우승열패의 원칙이 있고 도산, 실업이 필연적이다. ㉡ 기업의 자유는 상업주의 내지, 이익본위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퇴폐와 부패의 원천이 된다. ㉢ 사유재산제와 자본제는 부의 편재, 빈곤, 불로소득, 생활격차 등을 조장한다. ㉣ 자본주의 사회는 본래 계급사회이고, 계급투쟁에 의한 항상적 사회불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에서 비롯한 사회문제의 종류는 이혼문제, 비행·범죄문제, 약물남용, 가족해체문제, 정신질환문제, 자살문제 등으로 이의 해결 방법론이 전문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의 결함이나 탈선된 행위로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가치입장에서 사회문제의 주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즉, 사회문제를 사회적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는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역기능적 측면에서도 발견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 II.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 1.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문제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 역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일반적인 사회복지활동의 형태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활동은 행정이나 전문 종사자, 당사자 활동과 연계, 협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담당자로서, 지역 내의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역할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할로는 어린이회,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 문화 활동 등과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

가정 문고 활동 등 지역사회 여러 계급이나 계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로, 지역 내의 이웃이 생활의 불편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외상 노인, 치매 노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과 아울러 복지시설을 통한 시설복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 내에서의 이웃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자원의 불충족, 불충분, 미정비나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기도 하며, 스스로 개척하여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하며, 당사자 운동, 소송운동, 청원운동에의 협력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공적 제공 체계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민간조직과 함께 교회는 지역의 사회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공적 시스템과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나 크리스천은 그것을 찾아 그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 즉,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로,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것이다. 셋째로, 교회 내와 교회 간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우선 단독 교회에서의 활동이다. 각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정하며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간의 활동으로서,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된 교단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하는 것이다.

### 2.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문제에 대한 교회의 구조적인 역할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적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교회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법인시설 설치 운영 모형이 있다. 둘째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 위탁 운영 모형이 있다. 둘째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 위탁 운영 모형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운영비 모두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운영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탁 운영 시설의 경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셋째로, 교회 내의 인적·물적·조직적·시설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교회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선교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교인이나 일정 지역 내의 주민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고, 비인가 시설 형태로 자체 운영이 되다 보면 사회복지 전문성이 약화되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넷째로, 교회가 독립적으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선교적 책임을 다하도록 교인을 동기화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제시하여 주는 모형이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안이지만 그 시행과 정착이 잘 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 이유를 든다면 한국 교회의 부정적 측면인 개교회 중심적 경향으로 인해서 타 시설 및 기관에 참여하거나 지원 하는 것에 개교회가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참여한다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참여 형태인 것이다.

### 3.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上野谷加代子·山縣文治·松端克文 編, 2004 : 117-118).

#### 1)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원칙

첫째로, 지역의 복지욕구에 따른 원칙이다. 지역의 복지욕구에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욕구와 현행 제도나 서비스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것, 제도적·재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것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재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로, 지역주체의 원칙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주민조직이나 관계기관(시설) 등이 있다. 한편 각 지역은 환경, 역사, 문화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로 활동의 방법이나 조직의 운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을 중시하여야 하며, 돕는 자는 측면적 원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조직화의 원칙이다.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은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의거하여 움직여야 한다.

넷째로, 협동·활동의 원칙이다. 목적이 다른 각종의 주민조직이나 관계기관·시설 등이 지역에서 공통의 복지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로, 공사협동·분담의 원칙이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사의 책임분담을 확실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파트너로서 협력·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로, 사회자원 활용·개발의 원칙이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복지·보건·의료 등 여러 영역의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개발하여 서비스가 경직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적절히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 2) 지역사회복지의 추진과 욕구파악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생활실태나 복지과제 등 복지욕구를 파악하기를 위해 노력하여 복지욕구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출발점이다.

지역사회복지욕구의 파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역의 공통적인 사회적 복지욕구를 분명히 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자원을 동원, 개발하여 서비스의 양적 부분과 질적 부분, 또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민 개인의 구체적 생활욕구로부터 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지역사회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욕구를 보편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계자의 인식·태도 문제를 분명히 하여 이를 개선하고 욕구를 자각하여 더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가 전개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會 編, 1999 : 100-101).

#### 3) 교회와 지역사회조직사업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를 볼 때 그 일들은 교회의 제도로서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적인 책임에 의한 전문직업으로 발달되는 가운데 기독교회의 사회복지의 그 제도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가까스로 빈곤자나 기타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자선적, 동정적인 지원 정도의 보완적 사업에 종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회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자선의 개념이나 은혜적인 개념-이 현실에 대하여 본질적인 인권 개념의 길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Charles F. Grosser, 1973) 시대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실천 활동 가운데 무엇을 가져와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시행하여 온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

나의 도구로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성장시켜 새로운 존엄성을 지니게 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교회가 효과적으로 참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여온 자선적인 활동의 긍정적인 면의 완성(T. D. Sherrard & R. C. Maray, 1965)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회가 지역사회조직사업과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다른 시점으로서도 교회 자신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작금의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 교인이나 성직자 가운데에도 자신을 중산 계급적 가치관이나 편견 및 특권의식을 가진 자로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역사회조직활동에 대한 역할로서 竹中正夫는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가난한 자, 학대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평안(shalom)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그들과 동등한 동반자로서 공동적인 조직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코 자혜(慈惠)적 태도로서가 아니라 공동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竹中正夫, 1968). 즉 억압된 무력한 자(조직)의 자립과 강화를 지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일은 운영적 면과 재정적 면에 있어서 다른 여러 조직이나 단체들과는 다르게 독립된 재원을 갖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 커뮤니티 만들기**

“주기도문”을 보면 그 주제가 “나의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로 되어있다. 우리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로서 2명 이상을 말하며, 이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소위 “흩어진 교회”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즉 기독교 복음에 의하여 불러 모아진 자들의 공동체(Gemeinde)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 형성의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공동사회, 즉 커뮤니티란 과연 어떠한 구조를 가진 사회이어야 할까?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 2장 19절)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커뮤니티와 같이 출생이나 혈통의 우연성에 의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똑같은 동지로서 시민이며, 서로가 같은 곳에서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된다는 커뮤니티인 것이다. 그것은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밖을 향하여 열린 커뮤니티인 것이다. 현대인은 과거의 시골 마을 주민들의 습관과는 다른 이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는 이러한 근대적인 이웃 관계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도의 손에 쓰러진 사람은 옆에 사는 이웃은 아니었지만, 그 사마리아인의 신속함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마음에 의하여 도움을 받았다”(塩月賢太郎譯, 1967)는 것이다. 우리들은 교회나 지역사회 가운데 과거의 작은 마을이나 촌락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나와 너”와 같은 관계

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금일 많은 사회학자에 의하여 현대 사회의 병리적인 인간관계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들은 익명성이야말로 이 정보화 사회로부터 자유를 지켜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간관계의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법률이나 마을이나 촌락의 귀찮은 기대로부터 해방시키며, 진정으로 복음에 의한 자유로운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열린 커뮤니티”를 만들 경우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는 물론, 그 문제 해결에 이해관계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및 조직이 참가할 수 있는 조직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솔 알렌스키는 그의 민중조직의 건설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 등 문제 해결에 관계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長沼秀世譯, 1967). 이것은 도시 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하수도시설과 같은 환경위생 정비 상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도시 전체 문제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은 이것들을 정책으로 생각하며, 움직여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참가를 얻지 못한 지역사회조직활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알렌스키의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 토마스. D. 셰라드도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개량과 변혁은 커뮤니티 엘리트 구조의 포함과 참가 없이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의 조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Thomas D. Sherrard, 1964), 현재 이러한 지역으로서의 메트로폴리탄 수준의 조직화가 적절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역사회는 앞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무엇보다 더 복음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장인 것이다.

지역사회 만들기에 관한 다른 시사는 대도시에서의 무기력, 무관심 등 아파시(apaty)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화를 어떻게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T. D. 셰라드는 “빈곤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에 따른 인간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Thomas D. Sherrard, 1964)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들은 단순히 빈곤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의 하층부에 처하여 있고, 무기력과 무관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대응은 국가적인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문제의 사회적 대응에 있어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을 먹이로 한다든지 수탁하는 세력에 대하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힘을 갖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지역사회조직 활동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Charles F. Grosser, 1773).

**(2)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프로그램**

다음으로 기독교회가 지역사회조직활동을 추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해결하여야만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수립의 기본적인 시점 및 그 관점에 선 해결의 방법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역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나 대자연이 상징하는 정적인 자연신(神)이 아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적 불복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운동적인 신(神)이며, 이는 변혁을 향하여 움직이는 동적인 신(神)인 것이다. H. 쿿-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민족에게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을 통하여 오신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불기둥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구의 끝까지도 이동하시는 인격으로서 ‘먼저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長沼秀世譯, 1972).

이 “동적인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은 도시화 사회에서의 “유동성”의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인구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지역사회조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는 경우 이것은 활동의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부족주의의 해체와 복음에 의한 결단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신”, “역사 가운데 육신으로 임재하신 인격”으로서의 성격은 기독교회의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이 역사 속에 있는 사회적 변혁을 위한 운동적 시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그 활동은 정적(靜的)으로 지역사회에 고착된 부족적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 상황 하에 있는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활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빈곤자나 권리 박탈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의 교회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이라는 면보다는 우선 국가나 전문가에 의한 사업을 보완적, 자선적, 동정적으로 실시한 것에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우 리들은 굶주린 자들에게 작은 토스트를 가져다주기보다는 많은 방망이와 공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長沼秀世譯, 1972), 빈민가(ghetto)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의 페인트칠을 도와주어 집주인을 즐겁게 하기 보다는 어떻게 집주인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長沼秀世譯, 1972).

우리들은 주말에 슬럼이나 시설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활동하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하여 빈민 가운데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는 주말캠프 서비스를 생각하는 청년 집단에 대하여 슬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들을 어떻게 비폭력 행동에 참가시킬 것인가를 배우며, 또 그 경험을 그들의 부모에게도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長沼秀世譯, 1972). 이와 같이 기독교회의 지역사회조직활동은 우선 안이한 복지적 식민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주민 자신들에게는 그 지역 안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활이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의 참가 없이 위로부터의 동정적인 해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사회조직활동에서의 운동적인 프로그램이란 바로 이와 같은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동성이 적고 침체되고 정지된 사회에서는 이를 개혁,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발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지역사회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도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보수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흑인의 자유획득운동은 남부의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되어 온 많은 흑인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고, 그 결과 공민권 운동(civil right movement)이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長沼秀世譯, 1972). 한편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을 지적·재(財)적·심리적으로도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운동이나 변혁,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어서 지역사회조직활동의 리더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다. 변혁적인 운동이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노인과 비교하여 이동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우리들은 현대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유동성의 증대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야말로 메트로폴리스를 보다 인간미 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대도시에서의 지역사회조직활동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활동하는 사회에서 보다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지역사회로의 개선,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을 건네 변혁을 위한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사회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회자원의 네트워크란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구, 이웃, 자원봉사 등에 의한 원조(비공식지원)와 공적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원조(공적 지원)에 기초한 원조관계의 총체를 말한다. 이것의 기초개념에는 사회의 네트워크, 사회지원 등이 있다. 사회의 네트워크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변적이고 유기적인 인간관계구조를 지향하여 서로 간의 관계성에 의거하여 개인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회지원이란 인간관계에서의 개인을 지지하는 기능을 지향하여 구체적 애정이나 신뢰와 같은 정서적 지원,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와 같은 수단적 지원의 교환으로 개인을 이해한다.

사회지원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지원과 공식지원을 통하여 통합적 지원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원조자원을 동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자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구, 이웃, 자원봉사, 자조집단 등이 주체성을 갖고 이러한



원조관계를 형성하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과정이다(日本地域福祉學會 編, 2006 : 422).

**(1) 지역사회복지실천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인간서비스조직(Human Service Organization)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간서비스조직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복합적이고 변화가 심한 이익집단들로 구성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둘째, 인간서비스기술은 불명확한 여러 과업과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규정이나 세부 규칙은 조직들과 인간서비스요원들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셋째, 인간서비스기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서비스요원의 역할 수행과 산출을 감독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넷째, 요원-클라이언트의 만남은 조직의 통제를 쉽게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은 인간서비스조직이 비관료적 특성을 갖는 원인이 된다(성규탁, 1987, 218-20)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 가운데 실천이 효과와 효율을 갖기 위하여 공동적 네트워크로 가야하는 명확한 이유는 첫째, 경제적 현실성으로 중복서비스를 제거함으로써 고비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둘째, 가족중심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운동으로서 서비스는 개개 기관의 관료조직과 서비스 전달자들의 편의에 의해 수행되었던 실천을 반대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니드를 위해 기관 간에 조정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서비스나 팀 워크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조직의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갖고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실천에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간 연계관계 형성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자는데 있다.

**(2) 네트워크의 분류 실천형태**

그러한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데 이를 우선 기능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① 단신노인이나 허약노인의 케어 네트워크와 같은 마이크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요원조자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하며, ② 당사자 조직, 셀프 헬프 집단, 자원봉사 집단, 실무자의 서비스 팀과 같은 메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소집단활동, 사회참가 노하우의 제공 등을 하며, ③ 단체간, 조직간, 기관간의 연계, 연합체 형성을 하는 것을 매크로 네트워크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조직적 리더의 양성, 조직 운영, 계획 책정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을 할 수 있다(牧里每治, 1994, 73). 또 네트워크를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즉 보건·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마이크로 네트워크로 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활동이나 계획에의 주민참가, 사회운동, 사회개발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매크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같은 교파에 소속된 지역교회(노회 단위, 지방회 단위, 기타)들 간의 연합사업과 둘째는 지역사회의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합사업(예컨대 지역교구협의회, 지역교경협의회 등)과 셋째로 지역과는 관계없이 사업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들의 사업들과, 넷째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협의체와 다

셋째는 특정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다른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주체의 명칭을 특정교회 명칭과는 별도로 하는 경우와 여섯째는 지역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연합한 협의체이다. (사당지역복지를 위한 교회협의회 사업보고서, 2005, 22-4).

한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심기관인 사회복지관과 지역교회의 네트워크를 교회사회복지실천의 형태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유장춘, 1998).

첫째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봉사적 동기로 출발되어 사회봉사를 교회의 일차적 중심사역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다일 교회의 다일공동체나 활빈 교회의 두레공동체, 화천의 시골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생겨난 맹인교회나 청각장애인 교회 같은 장애인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성격의 교회들은 매우 높은 동기를 갖고 대단한 열정으로 복지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단절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지역에 세워진 복지관은 이런 교회들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실천하고 전문적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교회들을 조직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옹호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교회는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한 client들을 연결해 주고 복지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며 그들과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성장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어느 정도 시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이 형성됨에 따라 교회에 부속된 시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봉사관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여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교회들로서 덕수교회나 도림교회, 영락교회, 아현교회, 사랑의 교회 등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이들 교회들과 동역적 관계를 맺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프로그램을 조절하고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 형식을 도입하여 한쪽에서는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기관마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교회의 여러 부서들 중에 구제부 또는 봉사부를 설치하고 교회에 소속된 신도 들이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는 등 보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교회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회봉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 부서들은 교회내의 행사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사회복지관은 이들 교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유능한 복지 인력으로 훈련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전문가들은 이들 중소 규모의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 동참할 의사는 갖고 있으나 재정적, 시설적 여유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형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기획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이디어와 정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관은 이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세적인 교회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집, 공부방, 놀이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전도적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한편 약간의 재정적 수익도 올리고자하는 활동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도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보잘 것 없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관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상담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교회 성도 중에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교회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개별적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기독교 사회복지의 한 구성원임에는 틀림없다. 복지관은 이들의 종교적 열정에 근거한 높은 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단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형태로서 장로교단의 경우 연구조사와 정책수립, 자료제작, 교육실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옹호활동,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관련기관 운영 등의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관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옹호기관에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문제, 복지 제도적 모순,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교단차원에서 개교회를 향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교회 연합적인 차원에서 큰 교단들이나 한 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동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독교 TV나 연세대학교 같은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평택시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병원을 설립한 사례들과 같은 형태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매우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본다.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할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봉사라고 보인다. 교회들 또는 교단들의 교리적, 제도적, 정치적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사회봉사를 통한 하나 됨은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는 심지어 이교도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진다. 사회복지관은 이와 같은 연합 또는 통합운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경실련이나 기운실 등과 같이 기독교계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 발족한 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현안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의견과 시민의 입장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옹호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의 사역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 연계할 수 있다.

아홉째, NCC와 WCC와 같은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초교파적인 연합조직들이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과 국제적 기아사태 등에 대하여 정의구현을 위한 옹호활동의 형태가 있기도 하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의 제도적 불평등과 차별, 소외의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하는 지역사회의 보호자로서 이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에 지역교회가 동참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주민참여를 통한 활동의 전개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주민참여는 생활자인 주민이 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협력 받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참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이용자 자신의 참여와 또 하나는 지역주민 입장에서의 참여이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주민문제에 이들이 배제된 가운데 서비스나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비효율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삼자에 의한 문제해결로 인하여 문제발생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의 참여, 복지서비스 평가에의 참여, 복지정책수립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

## 4.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몇 가지 어려움

### 1) 성급한 기대감

사람들을 상대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면에서의 성과나 즐거움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상황이 급진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대가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인 면에서의 노력과 기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간의 부조화, 조직원 간의 불신감,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 등에 대한 수용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2)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하는 체험 중에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인이 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희망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하는 교회나 크리스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3) 목사, 교회 지도자, 교인과의 역할의 전환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의사 결정, 행동의 실시 등에 대하여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순종하여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 의한 결정과 실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인들의 활동 의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단기적인 면에서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실행하여야 하므로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이 실천에는 더욱 중요하다.

### 4) 목적과 성공의 척도의 오해

#### ① 교회 출석률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성공

많은 교회 관계자는 교회 활동의 지표로 예배나 성서 공부 출석률과 관련을 갖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교회에 출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성공을 생각한다. 반대로 교회 출석이 적으면 이 실천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출석자의 증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이는 교회의 본래적 존재 목적과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숫자적인 평가는 과연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질적인 평가는 하는 데에는 맞지 않은 평가 방법인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② 목적 달성의 평가

성공과 실패의 평가는 실천 사업의 이해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사업이 교인의 출석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사업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간 성숙화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평가는 인간의 변화를 주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III.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

### 1. 지역사회복지활동에서의 동일화와 객관화의 문제

근대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지역문제에 최초로 관심을 나타낸 집단은 기독교다. 영국과 미국의 세틀먼트의 예를 시초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각국 지역사회복지의 선두적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체제 아래에서는 기독교 등 민간복지사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복지 면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역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양적인 확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다양화 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에너지를 필수로 하는 지역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후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지역사회복지의 주체성 혹은 원리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阿部志郎(1967)은 먼저 「동일화」와 「객관화」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다. 「동일화」는 지역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주민과 밀착하는 공동적 태도이고, 「객관화」는 지역사회문제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세인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관찰」하는 두 개의 모순된 기본적 형태로 이것이 기독교 지역복지의 원리인 것이다. 이런 모순된 두 개의 원리를 하나의 과제로 하여 동시에 이루는 것이 지역복지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순을 통일하는 제 3의 원리, 즉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더욱이 세속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전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기능이 분화되는 것은 당연하며, 기독교 지역사회복지도 「익명화」(제4의 원리)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기독교는 전도의 주체자로 존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는 「동일화」 「객관화」 「사랑」 「익명화」의 4개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기독교 지역사회복지의 형태는 미션을 지탱하고 있는 「냉정한 걱정」을 지역사회로 향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에서의 마찰, 긴장 등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 긴장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하려고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과 커뮤니티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행정에 의해 설립, 위탁 운영되는 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의 생명은 미션의 자각에 의거하여 이를 현대화한 디아코니아의 확인과 자연적으로 움트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교회의 자세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형성은 「주택 가까이 교회」라는 형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Church in the Community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Church for the Community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工藤英一編, 1967). 또 크리스천이 이사를 해도 그 주변에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지도는 하였어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증개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복음 선교의 역할을 다하려는 자각은 결핍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체질을 어떻게 변혁해야 할 것인가가 기독교 지역사회복지의 장래에 관한 하나의 문제이다.

### 2. 지역사회복지활동 태도와 내용의 명확화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실천에 대한 지식, 이해와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교회 사명의 하나라는 것에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활동 내용의 명확화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교회가 시행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참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또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의향과 지역사회실천과 신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임의 참석, 또 교회의 목표와 목적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 3.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위한 교회복지사업의 투명성 확보

복지의 시장화 시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는 기부, 헌금,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품 등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회와 비영리단체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다 높은 투명성의 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분야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책임성과 윤리성에 대한 필요와 요구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교회의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부정의 요소가 있다면 교회와 비영리단체는 일반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재정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 인사의 투명성으로 구분된다. 또한 투명성은 어느 한 절차에 국한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운영의 목표설정, 정책입안, 집행, 보고, 자체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나타나는 지속적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투명성 가치는 이러한 관련 정의나 경험적 용도에 비추어 보면 “밖에서 속 또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로 파악된다. 관찰자는 대상이 투명할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와 그 흐름을 추적,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은 결국 이러한 점에서 관찰대상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그것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것이다.

한편 투명성이 결여되면, 시설의 경영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사전예방기능이 마비되어 사후적 처리방법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는 해당 시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투명성이 결여되고 신뢰성까지 무너지면 사회복지조직의 자금모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국에는 사회복지조직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삼원, 2009).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 접근성과 완전성의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구조로 구분된다. 첫째, 정보 접근성의 차원이 다. 열린사회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일반대중의 정보이용 가능성에 근거하는데, 접근은 일반대중이 사회조직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 획득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

을 보장하는 제도나 절차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이며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하며, 접근 채널은 다양하고, 또 항상 열려 있어 그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편리하고 비용에 부담이 없어야하고, 절차는 간단·단순해야 한다. 둘째, 정보 완전성의 차원으로, 투명성은 정보의 양과 질, 즉 많은 정보보다 나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따라서 투명성은 접근성 보장 외에 이러한 정보 완전성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완전성의 조건으로서는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신뢰성, 명료성, 평이성과 일관성을 들 수 있다.

투명성의 편익과 효과적인 면을 다시 강조하면, 우선 (1) 정치적 측면에서, 투명성은 이용자의 알 권리, 공개운영, 열린 시설, 당사자 참여, 책임성 개선 등과 같은 민주운영의 기본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한다. 불투명 운영으로 이용자들이 시설의 활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 활동을 제약한다. 또 투명성 부족은 시설의 특수이익의 추구를 조장하고, 정보의 부당한 거래를 낳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민주 시스템의 능력을 부식한다. (2) 관리적 측면에서, 투명운영의 편익은 관리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즉 정책실패를 막고,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전문가 의견 등의 포괄적 수렴을 통해 정보가 충분한 가운데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평가, 결정 등에 정실 억제, 형식화를 방지할 수 있고, 지출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은 정실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부터 다른 목적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정보공유로 운영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투명성은 정보부족에 따른 업무마찰, 불성실 신고, 미확인, 지연제출, 불이행에 대한 규제, 불이익 처분 등의 운영부담과 이러한 문제의 회피를 위한 거래비용, 비공식적 활동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윤리적 측면에서는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직성을 개선한다.

### 4.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위한 교회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

복지의 시장화에 시대적 상황에서 복지의 환경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급체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 공급체계에 속하는 복지의 환경 변화는 크게 경쟁과 규제요소가 혼합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진입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화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양적증가로 인한 경쟁체제로의 진입, 급여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의 강화, 수가에 의한 재정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들은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지서비스 조직 환경에 대한 이해는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로 교회의 복지사업이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갖게 되며, 특히 경영적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체제로의 진입과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가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확보한 것은 장기적으로 복지사업의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사업을 둘러싼 경쟁의 가속화,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재정체계의

변화, 각종 정부규제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으로써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기에 효율성 평가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효율성 측정이 조직을 둘러싼 경쟁원리, 정부규제, 소유형태 등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할 도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경쟁원리에 대한 가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조직들은 시장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는 효과와 효율의 달성으로 구성된다.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가 달성 정도를 의미하고, 효율성이란 자원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정도 또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등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개념과는 달리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효율성은 투입(또는 비용)에 대한 산출(또는 편익)의 비율로 정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동일한 성과를 얻는데 소요된 자원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성과분석에 있어서 비용의 개념이 없는 효과성보다 자원의 낭비 없이 투입 자원 대비 최대의 산출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효율성에 대한 측정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재원, 시간, 인력, 물리적 공간 등의 투입자원과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 서비스 제공 실적 등과 같은 산출물의 비율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전희정, 2013, 재인용).

### 5.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위한 교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지역 주민의 생활문제와 니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시대에 따른 것이어서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나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문제, 노인문제가 무엇보다 농후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노인을 예를 들면, 노인단독세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즉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증가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어려움을 겪은 노인의 증가이다. 젊은 때의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의 참여로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직원과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의 니드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양자 간에 있어서 바람직한 적절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니드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노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처, 가족 관계에서의 정신적 손상과 인간불신에 빠진 심적 외상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신뢰관계가 형성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은 생기지 않는다. 또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도 직원의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이러한 신뢰관계의 성립에 따른 상호작용이나 특히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노인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접근할 수 있는 것에 직원의 전문성(전문적 기술, 지식)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임과 동시에 폭 넓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직원은 사회복지학 외에 노인심리학, 정신의학, 치매, 법학, 가정학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자원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업무에 대한 적성, 이에 대한 적응 노력이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직원의 기술이나 지식에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나 그 활용을 적극적, 의도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고, 이것 또한 전문적인 처우라고 고도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위하여서는 복지서비스에는 신뢰(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은 사랑에 의하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서부터 직원의 인간적 자질을 요구한다. 직원의 조연이나 태도가 노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뛰어 넘는 인간성이 요구된다.

노인의 정신적인 풍성함, 정서적 안정, 가능성에 대한 존중은 무엇보다 더 인간 상호의 신뢰(사랑)가 기반이 되며 동시에 이것은 직원의 자기지각을 요구한다. 직원과 노인의 신뢰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직원 자신의 자기이해, 자기 성찰, 자기 평가 등의 유무와 커다란 관계를 갖고 있다.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서비스 관계에 있어서 자기 수용은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서비스의 전문성은 ‘효과적인 처우의 도구로서의 자기’의 발달, 즉 전문적 자기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며, 자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계가 깊은 것이다.

### 6.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위한 교회복지사업의 자율성 확보의 지원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전문성을 갖고 복지발전에 소정의 효과와 발전을 위하여서는 전문성 다음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일반적으로 자율성(autonomy)은 창의적 행위의 기초이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므로 기존에 해오던 사고, 규정, 방식의 틀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데 행위주체에게 자유 또는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조직에서는 대개 직급이 높은 구성원들만이 자율성을 누렸으며 직급이 낮은 구성원들에게는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이 수평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복잡해지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모든 직급의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조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수주, 2002).

자율성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제력으로서 직무수행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일정계획의 수립, 사용할 방법 및 수단의 선정, 업무



처리 순서 정립 등 자신의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수행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업무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는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율성이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업무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많은 구성원이 그렇지 못한 구성원보다 혁신성과와 직무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으며, 구성원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독립성이나 자유 및 재량권을 갖는다면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직몰입은 높아지고, 탈진(burnout)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한다(신재은, 2013).

자율성은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변수들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직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 도입,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들은 개인과 팀이 일상적 과업수행에서 높은 자율성을 누릴 때 그들의 창의성이 활성화된다고 결론지었고, 자율성이 내적 동기부여, 창의성, 성취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개인은 자율성을 가질 때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며 이것은 창의성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외재적 동기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고 내재적 동기 만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율성이 위험감수성향, 외부로부터의 경쟁 등의 변수들과 함께 개인의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조직의 자율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변하기도 하고, 조직의 구조가 바뀌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조직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자율성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율성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보다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촉진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조직 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다. 조직 환경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게 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직 환경의 변화 하에 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업목적, 사업방법, 사업계획에 통제 또는 자유재량을 발휘하여 조직의 사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아래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조직은 사업목적, 사업방법, 사업계획을 통제하고 재량을 발휘하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사명의 변질이라는 조직의 존립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이 발휘할 수 있는 통제 또는 자유재량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율성은 조직이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 위의 글들은 전광현 외(2011), 기독교사회복지 이해와 실천, 양서원과 전광현(1996 ~8), ‘기독교사회복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에 게재된 것들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참고문헌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8.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실태.”1994.

김미영, 교육행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과 자율성 확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봉원,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성철, 『교회사회사업』. 평화사회복지연구소.1998

김성철,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교회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 사랑의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강

권규상, 사회복지법인의 재무건전성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노희영, 회계법인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배용수, 『제3섹타의 이해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영전략』. 지방자치경영협회.1995.

송정부 역, 岡村重夫. 『社會福祉原論』. , 1986.

신재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 2013-07, 경기복지재단. 2013.

양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선교” 『사회지역사회복지활동 현황 및 그 전망』. 미간행물. 1998.

양승초,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양정하,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재편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윤민화, 주민조직에 참여한 빈곤여성의 공동체의식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원규, 『지역사회현실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1994.

이재희, 단체의 자율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전광현,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김성이 외.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전광현, 마키사토 츠네지 편저. 『한일지역사회복지론』. 나눔의 집. 2010.

전광현, “교회와 지역사회복지실천.” 경기밀알선교회 제1회 복지정책세미나. 1999.

전광현 역, 『사회복지신학』.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전광현,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전광현, 지역사회복지의의와 추진방법, 시흥시사회복지발전사,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2015

전희정,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 평가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정광부, 교사의 자율성 침해요인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중앙성결교회, “한국 교회의 헌금과 사회봉사.” 기독교사회복지세미나. 중앙성결교회. 1996.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개신교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조사보고서』. 두란노. 1999.

한창수, 조직 내 환경요인이 구성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현외성. 『21세기를 향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996.

현삼원,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도 한-미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1996 ; 1998.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지역사회선교협의회. “대전지역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지역 사회선교협의회. 1997.

사회복지연구원,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편집부. 『교회사회봉사총람』. 한국장로회출판사. 1994.

Oden, T. C., 『목회신학』.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8.

高森敬久 外, 『コミュニティ、ワーク』. 海聲社. 1989.

上野谷加代子、山縣文治、松端克文 編, 『よくわかぬ 地域福祉』. ミネルヴァ書房. 2004.

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Ⅲ, 『社會福祉援助技術各論 Ⅱ』. 中央法規. 1999.

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會 編., 『地域福祉論』. 中央法規. 1999.

相澤護治、井村圭壯片楮., 『社會福祉の基本体系 第3版』. 勁草書房. 2002.

新 社會福祉學習 雙書、編輯委員會 Ⅱ, 『社會福祉援助技術各論 Ⅱ』.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硯川眞旬, 『新 社會福祉方法原論：21世紀福祉メソッドの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96.

律寄哲雄, 『ソーシャルワークの社會福祉—イギリス地方自治体成 ソーシャルワークの立と展開』. 東京： 明石書店. 2003.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地域福祉計劃 理論と方法』.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6.

ボランティア研究會, 『日本のボランティア』.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0.

本田尙士, 『ボランティア活動のいざない』. 建棉社. 1993.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 『ボランティア』. ミネルヴァ書房. 1987.

田代不二男. 『社會福祉とキリスト教』. 相川書房. 1983.

日本基督教社會福祉學會 編. 『キリスト教社會福祉概論』.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79.

日本キリスト教社會福祉學會. 『社會福祉實踐とキリスト教』. ミネルヴァ書房. 1998.

門協聖子. 『ディアコニア』. キリスト新聞社. 1997.

基督教社會福祉學研究. 日本基督教社會福祉學會. 1975 : 1977.

竹中正夫, “共同社會本位の宣教活動”, ‘基督教社會福祉研究’ 1968.

Anderson, R. & Cater, I,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4th ed.). New York : Aldine De Gruyter. 1990.

Charles F. Grosser, New Direc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 From Enabling to Advocacy, (Praeger Publishers, New York Washington London). 1973.

Cottrell, L. S. Jr. “The Competent Community.” In Warren, R. & Lyon, L.(Eds.), New perspectives on the American community. IL : The Dorsey Press. 1983.

Hasenfeld. Human Servic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3.

Thomas D. Sherrard, Planned Community Change, Social Work Forum. 1964.

T. D. Sherrard & R. C. Maray. The Church and Neighbourhood Community Organization, Journal of Social Work, 竹内愛二 譯, “教會と近隣社會のコミュニティ°オーガニゼーション” ‘基督教社會福祉研究’ . 1968.

Harvey G. Cox, The Secular City,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66. 塩月賢太郎 譯, コックス, “世俗都市” 新教出版社. 1967.

Saul D. Alinsky, Reveille for Radica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長沼秀世 譯(1972), “市民運動の組織論” 未來社. 1946.

# [논찬] 전광현 님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에 붙여

정영일(이랜드복지재단 국장)

발제자는 한국 선교역사에서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1884년에 내한한 알렌(H. Allen) 선교사가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왕족 민병익을 치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 영향으로 [광혜원]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이 설립되었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초기 선교사들도 1885년 이후에 입국하여 교회 설립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등 사회복지활동을 열심히 하여서 복음전파와 사회복지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선교개념으로 복음화 운동을 통한 인간회복 작업은 탁월한 선교방법이었다고 했다.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은 “영혼구원과 사회봉사는 분리될 수 없다. 이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학(디아코니아)이다. 영혼구원과 함께 사회구원의 의미에서 복음적 영성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 사랑과 세상 구원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다.<sup>1)</sup>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이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하는 것이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취지이자 목표이지만 기독교사회복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 기반 위에서 육체적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 복지를 부인하는 것은 영혼을 제외한 육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복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을 위하여 영혼구원과 더불어 모든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이다.<sup>2)</sup>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의 존재 목적 및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명으로써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결코 자선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다. 선교 및 복음전파는 교회의 본질로 여기는 반면 구제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시각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과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 1.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당위성

발제자의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당위성,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이다.

본 논찬은 발제문의 구성을 존중하여 발제문과 동일한 순서로 의견을 기술하며 추가 내용을 작성하려고 한다. 아울러 발제자처럼 학자로서의 학문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로서 경영적인 관점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

### 1. 하나님의 명령인 사회복지활동

일반사회복지는 평등사상에 의거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조건의 개선활동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회복지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인간의 존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적 접근이라는 논지에 공감한다.

구약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등을 향한 활동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 2. 지역사회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특징

기독교사회복지의 고유성에서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의 공통성은 이웃사랑이라는 점과 사회복지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하위 구성들을 갖고 있는 점인 반면에 차이점은 성서와 종교 교리에 의한 실천이나 아니면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의거하는가에 대한 점.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나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구현 및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사회복지는 사명에 대한 순종, 하늘의 상급에 기반을 두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는 점 등의 발제자 논지에 공감한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에서 발제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강령이라 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사회봉

1)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 2012. 9. 8.

2) 이재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도서출판 세계밀알, 2013 (210~211쪽)

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으로 대별되는데,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행동이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교단 및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랑]의 실천 활동으로 사회봉사에 집중하기도 하고 [정의(공의)]의 실천 활동으로 사회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며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함몰되거나 사회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랑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항상 함께 언급되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 II.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 1. 교회의 일반적 역할과 구조적인 역할

발제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일반적 역할과 구조적인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일반적 역할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담당자로서, 지역 내의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사회 자원을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첫째는 공적 제공 체계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민간 조직과 함께 교회는 지역의 사회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 둘째는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내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것. 셋째는 교회 내외 교회 간의 활동을 관여하는 것으로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정하며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라면 교회 간의 활동은 비록 교단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지만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인 역할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첫째로, 교회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을 직접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법인시설 설치 운영 모형이다. 둘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 위탁 운영 모형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는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운영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로, 교회 내의 인적, 물적, 조직적, 시설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기에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교회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지역의 선교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인가 시설 형태가 되다보면 사회복지 전문성이 약화되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넷째로, 교회가 독립적으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교회의 각종 자원을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선교적 책임을 다하도록 교인을 동기화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제시하여 주는 모형이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 시행과 정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개교회 중심적 경향으로 교회가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인 임성규 목사는 “많은 교회가 사회복지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교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선교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교회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초대교회는 복음과 봉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했고 그 결과 날마다 성장했다”며 “현대의 교회도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sup>3)</sup>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결국 방법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뒷 부분에 가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2.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발제자는 일본 학자들의 이론을 많이 인용했다. 즉,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를 내용적으로 압축함과 더불어 실천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의 욕구파악이다.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 주민의 필요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통적인 사회적 복지욕구, 주민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욕구, 지역주민은 물론 관계자의 의식, 욕구, 태도 문제 등을 자각, 인식하며 개선하고 더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의 지역사회복지활동 뿐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욕구파악은 가장 기본이자 프로세스상의 출발점이다.

둘째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작금의 기독교사회복지가 자선, 은혜의 개념을 못 벗어나 사회복지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제도였던 것이 상실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과거 사회복지의 중대차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조직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조직의 자립과 평안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등한 동반자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운영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에서 타 조직보다 독립된 재원을 갖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가능하다고 했다.

셋째로, 네트워크 구축인데, 발제자는 여러 관점 및 학설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는데 기능적인 분류에서는 대상자의 케어 네트워크와 같이 요원조자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마이크로 네트워크와 소집단활동, 사회참가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메조 네트워크 그리고 단체간, 조직간, 기관간의 연계, 연합체 형성을 통해 조직적 리더의 양성, 조직 운영, 계획 책정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의 매크로 네트워크가 있다. 네트워크를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보건, 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제

3)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2016. 4. 5.



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마이크로 네트워크라 하고, 지역사회복지활동이나 계획에의 주민참가, 사회운동, 사회개발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매크로 네트워크라고 한다.

넷째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사업을 형태 별로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다섯째로, 유장준님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심기관인 사회복지관과 지역교회의 네트워크를 교회사회복지실천의 형태에 따라 그 방법을 아홉 가지로 소개했다.

발제자는 교단이나 기독교 시민단체 또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대한 복지관의 역할 관점에서 실제적인 방법의 제시이기에, 이 내용을 요약하여 옮겨서 기술하고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1)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봉사적 동기로 출발되어 사회봉사를 교회의 일차적 중심사역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다. 사실 이 부분은 교단의 성격이나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른 특징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당위성 측면과 교회의 본질 및 사명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일차적 중심사역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점차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다가 교회의 역량이 높아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 부분에 집중하거나 다른 지역교회와의 연합사역, 또는 지역복지관과의 연계 활동을 권하고 싶다.

2) 교회가 성장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어느 정도 시설과 인적, 재정적 자원이 형성됨에 따라 교회에 부속된 시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봉사관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여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들이다. 거의 모든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 내 인적, 재정적 자원 및 인프라가 갖추어졌기에 어떤 영역이든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규모에 비해 전문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효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인사관리 문제, 책임자의 비전문성, 비영리 경영의 무능, 개교회 중심의 폐쇄성, 교회 사명보다 목사 개인의 자아 실현적인 개입, 은퇴 목사를 위한 법인 설립 등등. 규모가 큰 교회이기에 파생되는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크며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헌금의 사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를 세워 경영의 독립성과 문어발식의 사업 전개 보다는 하나의 영역에 집중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회 운영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여러 부서들 중에 구제부 또는 봉사부를 설치하고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는 등 보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교회들이다. 전문가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이나 욕구를 조사하거나 자문을 받은 후 교회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영세적인 교회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집, 공부방, 놀이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전도적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한편 약간의 재정적 수익도 올리려 하는 활동들이 있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 등 전국 각지의 작은 교회들이 주로 빈곤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대형 교회보다도 어쩌면 더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 전문가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이직이 잦고, 교회 자체 인적 자원 또한 부족하여서 전문성의 한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원 연계가 이들에게는 당연한 우선순위 과제이며, 대형교회의 법인들이 이러한 전국의 작은 교회들에게 지원 사업을 펼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5) 교회조직과는 별개로 성도 중에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아마 교회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은 교회 성도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이겠다. 성도들도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시설을 찾아서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지속적인 봉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6) 교단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형태이다.

발제자가 언급한 연구조사와 정책수립, 자료제작, 교육실시,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옹호활동 등 개교회 차원에서 전개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역할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형 교회 이상으로 인적,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교단 또한 전문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교회나 교단의 사명과 괴리감이 발생하고 효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세상 명예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명 우선, 교단보다 앞서는 한국 기독교라는 안목, 교단 간의 연합, 교단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지역교회 및 지역사회복지 기관을 섬기는 리더십, 비영리 경영 및 사회복지 활동의 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겠다.

7) 교회 연합적인 차원에서 큰 교단들이나 한 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동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통로로 유력한 것이 사회봉사이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교단 리더들이나 목사들이 개교단이나 개교회를 탈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기 위한 대국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8) 경실련이나 기운실 등과 같이 기독교계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 발족한 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현안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의견과 시민의 입장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옹호 활동들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 복지활동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이나 성격의 사회 참여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영리 시민단체들도 조직의 사명에 충실하고 비영리 경영을 탁월하게 하여서 효과성, 효율성에서 놀라운 성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인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채널이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9) NCC와 WCC 와 같은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초교파적인 연합조직들이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전쟁과 국제적 기아사태 등에 대하여 정의구현을 위한 옹호활동의 형태가 있다. 지역교회나 기독교 인들은 이와 같은 기관이나 활동에 대해 초교파적으로 동참하여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

### 3.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어려움 및 과제

발제자는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함에 실제적인 어려움과 비슷한 맥락에서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던졌다. 논찬자는 제시한 모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가할 몇 가지를 부연함으로써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교회의 어려움

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함에 많은 노력이 드는 반면에 시행착오도 상당하다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급한 기대감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대를 발제자는 주문했다. 또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교회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있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교회의 명확한 미션에 입각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목사, 교회 지도자 및 교인과의 역할 부분에서는 일반 교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발제자는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인들의 활동 의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설사 단기적인 성과를 올린다 해도 권위적인 리더십 보다는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아주 공감어 가는 대목이다.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교인들의 열정과 재능을 이끌어내려면 목사 및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목적과 성공 척도(평가) 측면에서 발제자는 교회 활동의 지표를 예배나 성서 공부의 출석률, 교인 출석자 증가 등 양적인 것. 숫자적인 것 보다는 교회의 본래적 존재 목적 및 질적인 평가 방법이 맞다고 했다. 목적과 목표에 따른 성과관리는 뒤 부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공감한다.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언급한다면, 교회도 비영리단체이고 경영이 필요한데 비영리단체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신학대학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비영리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사회복지학을 국내 처음 도입하고 시작한 학교가 신학대학이지만 현재 많은 신학대학들이 일반 대학교들보다 과연 경쟁력 있게 인재를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2) 교회의 과제

첫째, 지역사회복지활동에서의 동일화와 객관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지역 문제에 최초로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복지의 선도적 입장이었던 기독교가 정부 등 공공의 비중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영향력이 축소되고 다른 민간 주체들에게 밀리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발제자는 阿部志郎의 이론을 빌려서 [동일화]와 [객관화] 그리고 [사랑], [익명화]의 4개 원리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화]는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주민과 밀착하는 공동적 태도이고, [객관화]는 지역사회문제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라고 했다. 이 두 개의 모순되는 듯 한 원리를 통일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이며, 현대사회에서 전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기능이 분화되는 기독교 사회복지가 [익명화]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라는 이론을 인용했다. 그리고 미션을 지탱하고 있는 냉정한 격정과 이를 현대화한 디아코니아의 확인 및 자연적으로 움트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감성과 이성의 대칭 속에서 사랑을 통해 그 균형감을 잡아야겠다.

또한 교회 안에 갇힌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명을 깨닫고 실행해야하겠다. 사회적 인 특징과 기독교인 개개인적으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3)"가 이제는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대 상황인 듯하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활동 태도와 내용의 명확화이다. 실천하는 기독교인 모두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아야 하고, 교회 사명에 대한 이해와 활동과 관련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

셋째, 투명성 확보이다. 발제자도 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중요하게 강조했다.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은 각종 재원을 지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회복지활동을 정당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성과 윤리성의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투명성은 [재정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 [인사의 투명성]으로 구분했다. 과거에는 사회 전 영역에서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였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일반 조직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부정적하다는 비판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에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재정의 투명성이다. 세금도 혈세라고 하는데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귀한 것이다.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게 된다면 아마 교인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교회 재정 투명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성과와 교회의 변화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담임목사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운영의 투명성도 담임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결단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사의 투명성은 운영의 비민주적인 것과 맞물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인데 채용부터 투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된다.



넷째, 효율성 확보이다. 복지 영역에서 전에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체계였던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생기고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발제자는 “복지서비스 조직 환경에 대한 이해는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로 교회의 복지사업이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갖게 되며, 특히 경영적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체제로의 진입과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가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확보한 것은 장기적으로 복지사업의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조직의 성과를 얘기할 때는 효과와 효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효과성은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의미하며, 효율성은 투입한 자원과 산출의 비율 등의 관계이다. 과거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주어진 자원 특히 공적 자금을 100% 문제없이 집행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하게 효율성 관점에서 운영을 하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노인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효율성에 더하여 경영 관점에서 존립과 연관된 BEP(Break Even Point)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교회나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에서 효과, 효율성을 논할 때는 먼저 효과성이 더 우선한다고 본다.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이 되었고 목표의 상위 개념은 목적이며 목적은 조직의 사명과 연관된 개념이다. 비영리단체는 사명 즉 미션(Mission) 때문에 생겨난 조직이다. 사명이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며 사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나 경영자, 교회의 목사는 경영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 교수의 “비영리 단체는 재무적 순이익이라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경영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더 잘 해야 한다. 비영리단체 사명과 그 ‘산출물’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sup>4)</sup> 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리 조직에서 돈은 투입인 동시에 산출이다. 반면에 비영리 조직에서 돈은 투입일 뿐이다. 산출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비영리 기관은 우선 투입과 산출을 구분하고, 산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더라도 산출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sup>5)</sup>

15년 전만 해도 비영리기관에서 경영을 얘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며 거부감이 있었으나, 요즘은 비영리 영역에서는 경영을 배우려고 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비영리 리더십과 강점을 배우려고 함에 다행스럽다.

다섯째, 전문성 확보이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끝이 없다. 교회가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복지활동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기초한 영적인 가치와 패러다임 바탕 위에 사회복지의 학문적 원리는 기본이며 더해져서 비영리 경영을 도입하는 용.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발제자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펼치는 데에 서비스 주체의 전문성(전문적 기술, 지식)과 함께 대상자 간

4) Peter F. Drucker,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이재규 역,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2002.  
5) Jim Collins,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강주현 역,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김영사, 2015.

의 상호작용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 그리고 신뢰(사랑)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의 인적자원인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타성의 재능(성품)을 갖고 있다. 재능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교회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리더십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통해 사명을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본다.

여섯째, 자율성 확보의 지원이다. 발제자는 전문성 다음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자율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율성은 창의적 행위의 기초이며,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제력으로서 직무수행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인용해서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변신을 시도하며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주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외에 추가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교회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다. 개교회 중심 또는 대형 교회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이나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보다는 교회나 교단의 연합을 통한 활동으로 전개하면 좋겠다.

둘째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연합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면 개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성과 핵심 역량을 고려하고 지역사회나 세계 선교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 포기를 통한 선택적 집중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전문가 양성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학대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시작했는데 그 주체로서의 역할 회복이다. 교회에서 인재관리의 투명성과 전문가를 세우려면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이재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도서출판 세계밀알, 2013  
Peter F. Drucker,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이재규 역,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2002.  
Jim Collins,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강주현 역,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김영사, 2015.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2016. 4. 5.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 2012. 9. 8.



## [논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

이재원 관장(종로종합사회복지관)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역기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 사회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3저(저자본, 저학력, 저기술)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이다. 부모세대가 돈이 없어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세대가 배우지 못함으로써 저학력과 저기술로 인하여 결국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 즉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그들이 처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행 4:34)라고 하였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삼아 섬기는 생활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발제인 전광현교수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에서 밝힌 교회에서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로서 3가지 유형과 추진방법으로 지역사회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매우 공감어 가는 부분이며,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발제자의 입장을 동의하면서 제도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를 기독교사회복지라 표현)

### II. 사회복지와 교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전쟁 후 고아 및 미망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국 원조기관에 의한 물질적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산업·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은 다변화와 더불어 양적·질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헌법 제 34조 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과 2항(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제4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였으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2000년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저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9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성과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변화된 복지 수요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독지가들에 의하여 설립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종교계 및 개인에 의하여 설립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봉사·헌신 등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지역사회복지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 1. 지역사회복지 개념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가 갖는 복지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전개되는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등을 포괄하는 일련의 개입 활동들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협의적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넘어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 즉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련의 개입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2005)

지역사회복지를 정의하면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생활상의 빈곤과 사회적 욕구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 또는 재활하기 위한 공공적 민간적 개입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만두·한은경, 현대사회복지개론, 199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복지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부 혹은 외부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총체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기독교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하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후 그동안 사회복지 일각 특히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능하면 사회복지의 역사와 방법론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기독교적인 관점을 배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일반 사회복지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이나 기독교적 관점을 무시하거나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초적인 학문의 지식적 바탕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뿌리 없는 학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2004)

기독교사회복지란 기독교인의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적 범주 안에 포함된 영역이므로 교회의 모든 사회복지활동은 기독교사회복지의 하위영역임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기독교

인들의 체계적 노력이며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생명존중과 이웃사랑, 봉사과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통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개선시켜 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의 사업, 하늘의 사업, 거룩한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사회복지란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구원사업인 것이다.(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1998)

복음전파의 맥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의 복음을 수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들의 사회적, 인간적인 만족과 성취를 위해 도와주는 전문적 활동이다.(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1998) 또한 기독교사회복지란 한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려는 선교적 사명과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개입을 통한 전인적 통전적 회복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회복의 노력 과정이라 한다.(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2004)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과 헌신의 기독교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교회의 모든 사회복지란 뜻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복지선교라 할 수 있겠다.

### 3.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

#### 1)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기능

교회는 종교적 사명을 지닌 기관으로 기능면에서나, 가지고 있는 자원 면에서 종교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고 지역사회 속의 교회가 되어 기독교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체계와 통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지지적 기능과 부족부분을 충당해 주는 보충적 기능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완전히 손실되었을 때에 교회가 서비스를 대치할 수 있는 대치적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빈곤, 장애, 노령, 이혼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막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어야 하며 질병, 이혼, 비행 등에 대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 등을 교회의 사회 복지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김아나, 교회의 청소년복지 프로그램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2)



## 2)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실천을 지역사회에 전달했고 지역사회는 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여 지역사회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첫째 지역사회에서 형제애를 담당하고, 둘째 지역사회에 선지자적 역할과 셋째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결속과 지역복지에 책임을 공유하며 넷째 지역사회에 중재역할을 담당하며, 다섯째 사회 행동적 역할을 갖고 여섯째 지역사회에 변론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김형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방안, 2008)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선포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나눔의 사역은 하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 3천명내지 5천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나눔과 집사들의 열성적인 섬김의 결과로 온전한 통합적인 신앙의 형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복지는 철저히 협조하며 동반자적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할 것이다. 교회와 지역사회복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완전한 파트너요, 잃었던 예수의 사역을 함께 세우는 작업인 것이다.(곽희주,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회의 역할, 2004)

이상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 기독교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4.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과 과제

### 1) 기독교사회복지 참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사회 속에서 관계성과 신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이 곧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한국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와 사회복지, 2001)

지역사회복지활동에 교회의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함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다. 둘째 교회의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기독교인은 교회 외적 생활영역에 속하여 있으며 모든 사회제도의 대상으로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으며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교회도 구성원들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복리를 위한 신앙의 실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마태복음 20:28)는 말씀대로 교회와 믿는 자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다섯째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케리그마, 친교의 코이노니아, 봉사의 디아코니아는 서로 다른 영역이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통합적인 형태의 동시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섯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수평적인 사랑은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인간사회 전체의 살롬화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적 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 실천과 복지사회 구현이 국가적 책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와 책임을 분담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김형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방안, 2008)

### 2) 페러다임의 전환

교회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서 주민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결속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주민 모두가 하나님의 잠재적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기독교지역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페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인 수, 교회의 건물, 헌금 등의 증가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는 양적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복음의 선포에 대한 자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고보서에서 복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복음은 단순히 언어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친교 속에서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믿는다는 주관적 인식과 더불어 객관적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객관적 검증은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넷째 교회와 지역사회를 구별하는 이원론적 견해를 지양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책임회피, 나태 등은 근원적인 죄가 된다.(심일섭역, 기독교 사회복지선교, 1979) 다섯째 지역사회를 향하여 문호가 열려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교회의 관심이 교회 내부에로만 향하게 될 때 교회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성을 지니게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우월적 의식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일방적이고도 시혜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내의 일원이라는 자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협동관계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현대사회는 교회의 총체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단순한 구호나 구제 등 자선적이고 사회봉사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사회구조나 사회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활동에 나서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개 교회들이 집단이기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그 공동체 형성의 책임을 교회에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곧 지역사회의 분열을 의미하며 인간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김형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방안, 2008)

### 3)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

#### (1) 교회 간 협력체계 구축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적 시정과 함께 사회복지를 위한 협력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교회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노치준,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흐름과 방향, 1999)

개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협력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 간의 협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늘날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조직은 폐쇄적으로 될 때 질적·양적인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교회 간에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

며,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과 연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개 교회들의 지원 현황을 평가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선교활동이 교단간의 연합 혹은 다른 복지단체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되고 결국 교회의 이미지를 궁극적으로 고취시킴으로서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조홍식, 교회사회복지 실천의 방향)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 교회의 역량에 따라 분야별 연합 혹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하다면 타 지역사회와도 연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연대 강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더 이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필연적이며 이를 통하여 공신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기독교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라는 인식을 지역주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 (3)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필요에 따라 개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의 탈피하여 교회 간 혹은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교회가 지역사회 내의 사회 복지적 문제를 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협력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부족, 물적·인적자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복지기관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III.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기독교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외형적인 측면을 성장과 발전으로 가늠하는 양적사고를 지양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들 간에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과의 상호협조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제도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맞춤형 급여제도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2000년 10월 1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효되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즈음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파구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해 생활고로 고생하다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송파 세 모녀사건은 틈새계층, 즉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향이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성도들에게 안내하여 자신에게 맞는 급여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2. 읍·면·동 허브센터(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송파 세 모녀사건으로 인하여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 허브센터를 서울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추진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긴급하게 요보호가 필요한 성도를 읍·면·동사무소에 연결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3.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회복지방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이 되면 초 고령화 사회가 되어 심각한 노인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가 하나 숙제로 남아있다. 노인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경제문제, 둘째 고령으로 인한 질병문제, 셋째 사회로부터 소외됨으로부터 오는 고독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교회가 다 짚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는 방법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사회복지 방향의 큰 틀이라 생각되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공동생활 가정운영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혼자 살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능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말벗이 없어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껴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회 인근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동이 가능한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생활함으로써 1인 노인 가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인근에 거주하여 교회생활을 편안하게 하며,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믿음 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어 기쁨 또한 많을 것이다.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비용과 운영비 일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에게 현금을 받아 마련하며, 운영비 등은 성도들의 후원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 이 공동생활 가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신앙심을 갖게 할 수 있어 교회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신개념의 요양센터 운영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가 거동이 불편하게 된 노인이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요양센터운영이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교회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는 경우와 거동이 불편한 기독교 노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요양센터에 부득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노인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 확보와 안정적인 케어서비스 수혜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요양센터, 게스트하우스, 교회가 함께 있는 신개념의 요양센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전문적으로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센터와 신앙 공동체로서 거주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있고, 자녀 혹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의 요양센터이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관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거동불편 노인에게 안정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개념의 요양센터를 운영하여 초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

이승열 목사(전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총무, Dr. Theol. Diplom Diakoniewissenschaft)

## 1. 들어가는 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일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이며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아가 종교를 떠나서 일반사회에서 나눔, 인도주의적인 구호, 자선행위, 시혜를 베푸는 일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이며 전문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를 통해서 시행된다면 사회복지가 되고 사회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디아코니아는 일반사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사업의 영역 안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이 같을 수가 없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기독교역사와 전통이 오래 되고 강한 특히 서유럽의 기독교 선진 국가들은 기독교사회복지라는 개념과 의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와 교회의 연합 내지 협력적 차원에서 거버넌스 민관협동의 의미로도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이나 다름없는 민관협동의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복지도 기독교 내지 교회의 사회복지가 함께 협력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실행하려고 해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종교단체들이 수탁을 받아서 위탁영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근에는 경쟁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사회복지를 교회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지 기관 단체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회복지나 사회봉사를 직접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디아코니아신학 혹은 사회선교신학에 대한 이해와 의식 내지 특별한 훈련 없이 재정지원 혹은 개교회중심적인 대형화를 추구하는 성향과 욕구 때문에 잘못 운영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 5년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개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본격적인 디아코니아 엑스포를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기독교사회봉사/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소개하므로써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디아코니아의 이해와 참여확산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다. 특히 일반 사회의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고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섬기고 나누며 도와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본질적인 일이다. 선교와 봉사는 밀접한 관계에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데 선교적 봉사와 봉사적 선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마을을 만들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 지평에서 모든 불신자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섬김과 나눔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을목회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는 건강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신학적 이해와 의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선교관과 목회관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겪으면서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으며, 인구절벽시대라는 용어도 회자되고 있다. 세계무역 10대국에 속하는 정도로 경제도 발전했지만 양극화가 심각하고 자살률과 청년실업률이 높아 오늘날 청년들은 n포시대, 헬조선 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고 피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여건 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욕구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라도 신음하며 도움을 소리 없이 청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느끼며 다가가며 섬겨드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에 관한 디아코니아 신학적 차원의 전거들을 살펴보고 그 모범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지역사회 봉사의 디아코니아 신학적 전거

### 2.1. 성서적 전거

#### 2.1.1. 구약 성서적 전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제 중의 하나인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에 국한된 사명이나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속에서의 섬김의 사명이요 책임인데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를 논할 때에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지역사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서 위치하고 있는 한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위치와 연관성이 깊으며, 또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로서 온 누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라고 하는 넓은 차원에서, 전 우주적 차원에서까지의 넓은 지평과 차원에서까지 세상과 사회와



좁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혹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책임과 사명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디아코니아를 논하는 성서적 전거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근거<sup>6)</sup>로서의 성서를 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세상과 사회 속에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너무나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부조화의 세상이 되었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으로 구별되는 것은 서로 섬기며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현상도, 경제정의의 문제도 생태정의의 문제도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은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공간에 이르기까지도 속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의 능력과 감성과 영성으로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이다.

구약에 교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라는 실체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제한적인 전제하에서 창세기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들이 친척과 함께 더불어 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이웃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족장들과 그 지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하는 모임을 사회봉사의 기본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 ‘벧 아비’(בית)는 ‘아무개의 아비의 집’(창12:1)이고, ‘미슈파하’(משפחה)는 ‘족속’으로 번역되는(창24:38) 넓은 의미에서 씨족사회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쉐벨’(שבט)는 ‘지파’(삿18:19) 또는 ‘말테’(מטה)는 ‘지파’를 의미한다.(수 7:1) 출애굽기에 이르러 야훼신앙을 중심으로 한데 뭉친 사람들의 모임은 ‘이스라엘’로 나타나며, ‘암 야훼’(야훼의 백성)이라고도 불린다. 이방나라는 보통 ‘고이’(גוי)라고 부르지만 더러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그밖에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를 ‘카할’(קהל: 회중, 대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는 야훼께서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였다. 한편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 구약 히브리말로는 보통 ‘고임’(גוים: 열방, 이방)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구약성서에는 ‘사회’에 해당되는 용어는 적절하게 찾기가 어렵지만, ‘봉사’에 해당되는 개념의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순수한 봉사 혹은 섬김의 뜻을 가진 단어는 ‘아발’(אבר)이다. 이 ‘아발’에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을 뜻하는 ‘에벤’이 나왔다. 구약에는 ‘섬기다’는 동사가 271회 나오는데 ‘종’이라는 명사는 거의 세 배 이상

6)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집대성해서 하이델베르크대학 디아코니아 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이 있다. Gerhard K. Schäfer/ Theodor Strohm (Hg.), Diakonie-biblische Grundlagen und Orientierung, (Heidelberg: HVA, 1990);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 펴냄, 『디아코니아와 성서』, (서울:한울출판사, 2013.) 참조.

7) 박동현,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이삼열 엮음,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117.

이나 많은 800번이나 나온다. ‘아발’은 우리가 ‘섬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이는 구약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나 또는 한평생 일함을 뜻한다. 또한 사람의 사람됨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하다’를 뜻한다. ‘섬기다’를 뜻하는 다른 히브리어는 ‘샤라트’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을 뜻하는 데 쓰이는 경우 말고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샤라트’는 어디까지나 자유인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경우만을 뜻하기에 그 점에서 종의 신분으로 마치못해 주인을 섬기는 경우도 포함하는 ‘아발’과는 다른 것이다. 그 외에도 ‘섬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말로 ‘아만립네’는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시기 위해 그 윗사람 앞에 서서 명령을 받아 하는 몸가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신1:38),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백성들에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셨고, 이 민족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나라의 회복과 뜻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공동체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세상과 사회의 의미를 대입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공동체가 출애굽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그네 된 자<sup>9)</sup> 레위지파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법을 주셨고, 실제로 그 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셨다. 대표적인 것이 십일조 제도였다. 첫째로 십일조는 그 땅과 과실나무의 소출의 10분의 1과 가축 떼의 10분의 1로 이루어지는데 레위사람들에게 주었다.(레27:30-32, 민18:21, 24) 한편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아론계 제사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쳤다.(민18:25-29). 곡물은 타작을 해서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로는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서 십일조를 바쳤다.(민18:27, 30, 느10:3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소산물 대신에 돈을 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분의 일을 더 보내서 내야했다.(레27:31) 그러나 가축의 경우는 동물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문에 서서 검사를 하거나 선별하는 일 없이 열 번째 때마다 십일조를 표시하였다.(레27:32,33) 부가적인 십일조 즉 둘째 10분의 1이 있었는데 해마다 떼어놓았다. 이 십일조에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사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십일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족이 국가적인 축제를 위해 함께 모일 때에 사용하며 즐겼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어서 가지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출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신12:4-7, 17, 18; 14:22-27) 그런데 칠 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주기의 매 3번째와 6번째 해의 끝에

8) 위의 책, 118-119.

9) 천재지변이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박해 같은 인위적으로 빚어진 불행 때문에 고향을 떠나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사람만족은 특별히 따듯이 맞아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해 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면 그들을 가리켜 ‘겔’이라 일컬었다. 이런 표현을 개역성경은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레19:34),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레16:29)로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이유를 구약성서는 지난 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떠돌이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창23:4, 출2:22, 13:3, 22:20, 23:9, 신10:19, 레25:34)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나그네로 받아들인 후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지만 그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농토를 소유할 수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들을 고아나 과부들에게 하듯이 이들을 도와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섬김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를 찾아온 이방사람들에게 대한 것인 만큼 소극적인 섬김이라 할 수밖에 없다.

는 이 십일조를 국가적 모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레위 사람과 외국인 거주자, 과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떼어놓았다.(신14:28, 29; 26:12)<sup>10)</sup> 십일조에 대하여 우리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원래적인 목적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지파인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등 즉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십일조의 의미를 살려서 전체 예산의 십일조 즉 10% 이상의 재정을 디아코니아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회 재정의 10% 이상이 최소한의 교회 사회봉사의 분야에 배정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공동체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추수할 때에 포도의 열매도 남겨놓았고, 모든 곡식을 남김없이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놓는다든지, 땅에 떨어진 곡식을 그들이 와서 줍도록 배려해주는 제도도 이어져 왔다.(레19:9-10; 23:22; 신24:19-22). 같은 지역사회 혹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생각했고 배려한 것이었으며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룯기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룯이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살면서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 연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때로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배는 먼저 사람들과의 올바른 정의로운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체다카( צדק ) 혹은 헤세드 ( חסד ) 같은 용어들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같은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복합적인 의미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은 제 아무리 성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종교비판과 사회비판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곧 정의로운 삶(사1:17, 렘7:5, 암5:24)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분배적인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약함을 채워주고 강하게 해주는 정의인 것이다. 이사야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1:17)고 하며, 예레미야는 비슷하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렘7:6)고 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기로 한 것은 그냥 예언자들의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이기도 했다.

10) 디박동현, 위의 글, 125-126;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울출판사, 2010), 203-204.

구약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디아코니아를 실천한 사람은 욥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고대사회시대에서 실제로 살았던 의인 욥은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자신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고 살지 않았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욥29:12-17)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뚝이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욥31:16-23)

그런데 아람어로 사용된 욥의 유언서(Das Testament Hiobs)라는 문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욥의 사회봉사적 삶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주전 100년-주후 100년 사이에 생겨난 것으로 호마 황제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유대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욥의 구체적인 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50개의 빵 굽는 기계 가운데 12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식탁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였다. 그는 과부를 위해 12상을 차려서 식사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3,500 겨리의 소 가운데 500겨리의 소를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어 받을 갈도록 해주었다. 그곳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생계유지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13만 마리 양 가운데 7천 마리의 양털을 깎아서 헐벗고 추위에 떠는 자들인 고아,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었다. 욥은 9,000 마리의 숫낙타 가운데 3,000 마리 낙타를 선택해서 누구든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며 짐을 도시와 마을로 운반하도록 도와주었다. 욥은 매일 비둘기 300마리, 염소 50마리, 양 12마리를 잡아서 육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식탁을 30개 차려주었으며, 구제물까지 제공하였다. 나아가 자영업으로 생계 돌봄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려는 무소유자들에게 상업 자본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소득을 가지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는 무소유자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즐겁게 하였다.”<sup>11)</sup>

11) 김옥순, 위의 책, 220-221.



이러한 옴의 사회봉사는 그 당시에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적 의미를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 구약학자인 베르거는 옴의 사회봉사적 특징으로 첫째 유토피아적 이상향과 달리 현실에 맞는 재산사용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었다. 상업자본을 대출해 준 것을 그의 재산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상환금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았다. 둘째 가정경제의 차원을 넓게 내다 본 것. 즉 구제 차원을 넘어서서 계획적인 경제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인 재통합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들에게 용돈을 줌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 재생산 구조를 창출하였다. 자신의 소유 일부를 생산 수단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였다. 차용수수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상업자본금을 대출받은 무소유자들은 대도시에서 상업을 확장하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다. 만일 그들이 실패한 경우에 옴은 빚을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그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도시가 할 수 있는 복지운영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셋째, 옴의 사회봉사는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였다. 즉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고용 창출을 활성화 시켰다. 구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식탁봉사나 들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일일 노동자로 고용해 줌으로 그들이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 주었다.<sup>12)</sup>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시켜준 것은 공동체내 구성원들 서로 사이의 강력한 연대감이었다. 이 공동체성 위에서의 사회문제가 곧 개인문제요 개인문제는 곧 사회문제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회봉사에 있어서 교회와 사회가 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룬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라는 표현 보다는 사회 안의 교회라는 표현이 더 낫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곧 교회의 선교의 현장인 것이다.

### 2.1.2. 신약 성서적 전거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과 가르침과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헬라어 명사형 ‘디아코니아’(diakonia, διακονία), 동사형 ‘디아코네오’(diakoneo, διακονέω), 명사형 ‘디아코노스’(diakonos, δῆκονος)를 중심으로 ‘섬김’, ‘섬기다’, ‘섬기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동사형 ‘디아코네오’(diakoneo, διακονέω: 섬기다)는 37회,<sup>13)</sup> 명사형 ‘디아코니아’(diakonia, διακονία: 섬김)은 34회, 섬기는 자, 일꾼, 하인 등으로 사용된 ‘디아코노스’(diakonos, δῆκονος)는 29회가 사용되어 모두 100여회 사용되었다.<sup>14)</sup> 신약성서의 헬라어 동사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는 분명하게 식탁시중을 드는 일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눅17:8, 12:37, 요12:2, 눅22:26, 8:3, 마22:13, 27:55, 막15:41 등). 명사형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생계 돌봄을 의미하는 식탁 제공을

12) 김옥순, 같은 책, 222-223.

13) O. Merk, Aspekt zur diakonischen Relevanz von >Gerechtigkeit<, >Barmherzigkeit<, und >Liebe<, in: G. K. Schäfer/Theodor Strohm(Hg.), Diakonie-biblische Grundlagen und Orientierung. Ein Arbeitsbuch zur theologischen Verständigung über den diakonischen Auftrag(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anstalt, 1990), 147.

14) 위의 책, 146.

뜻하기도 하였다.(눅10:40, 행6:1 등)<sup>15)</sup>

통상적으로 헬라 사회에서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은 당시 헬라 세속사회에서 봉사에 대한 이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즉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인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귀신들린 자들, 그리고 작은 자들과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전인적으로 치유해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공동체로서 섬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sup>16)</sup> 이와 같은 섬김을 위한 예수의 보냄 받음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 내용인 사랑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즉 예수는 인간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신약성서에서 ‘섬기다’는 동사는 예수의 구원 사건과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가복음10:45 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는 것’과 ‘대속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섬김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속의 죽음이었다. 이처럼 예수의 봉사활동은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이루었고, 역으로 그의 구원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시작되어 구원에까지 이르는 봉사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신앙인은 봉사 없는 생명 구원을 바랄 수 없으며, 또한 생명구원과 유리된 봉사는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섬기는 희생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인간들은 구원받은 인간생명 속에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였다.<sup>17)</sup>

예수 제자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봉사한다는 단어는 예수 자신이 종으로서 비유했고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척도였다.(요13장, 막10:42-45)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활동은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헐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는 일 등은 생계유지를 돌보는 일로서 집약되고 특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활동들의 디아코니아는 유대적일 전통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서<sup>18)</sup> 특히 유대의 가정주부 역할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 집주인들이 그들의 재정을 가지고 과부들을 받아들여서 돌보았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함께 옴바에 있는 과부들(행9:36-43) 역시 직물을 짜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신앙인들로부터 선한 자선과 구제의 행동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5:16에 나오는 생계보호를 받는 과부들은 생계 돌봄을 받는 대상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역시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선행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였다(딤후5:3-16). 즉 그 당

15) U. Lutz, "Biblische Grundlage de Diakonie", in: G. Röckle(Hg.), Diakonische Kirche. Sendung-Dienst-Leitung, Versuche einer theologischen Orientierung(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17.

16) 위의 책, 21.

17)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22.

18) K. Müller, Diakonie im Dialog mit dem Judentum. Eine Studie zu den Grundlagen soziale Verantwortung im jüdisch-christlichen Gespräch(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anstalt, 1997), 418.



시 혼자 사는 여성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계 돌봄을 받는 자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수행하였다. 과부들은 공식적으로 고아들을 돌보며 갠 자들의 생계 돌봄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sup>19</sup>

다른 한편 사회지위적인 관점에서는 신약성서 안에서의 “봉사하는 것”에 관한 표현은 항상 사회지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신학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서로 상치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지배 권력을 가진 자는 그를 섬겨야 하는 자와 대조되며(막10:42-43, 마20:25, 26, 눅22:25, 26), 식탁에 누워서 식사를 하는 자는 식사 시중을 드는 자와(눅22:27, 12:37), 노예를 소유한 자는 그들을 섬기는 노예들과(눅12:37, 17:7f)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막10:45, 마20:28)가 대조되듯이, 이처럼 서로 결합될 수 없는 대조를 “봉사하는 것”이 극복시켜주는 것이다. 즉 섬기는 봉사는 큰 자가 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을 섬기는 자가 극복하는 것이며, 결국은 종이 되는 존재로서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다(막10:44, 막20:27). 이러한 봉사는 세속사회의 지위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적인 신앙존재의 실존이다.(막9:35) 그 당시 세속사회에서 주인들에 의해서 멸시 받는 노예들 내지 여성들에 의해 식탁 생계유지의 일이 수행되었듯이 이제 모든 신앙인의 지위는 그들처럼 섬기는 자의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섬기고 생계를 돌보는 봉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봉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유인 남성들은 여성이나 종들과는 다른 그 어떠한 특별한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섬기는 신앙인의 위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역전된 위상을 가지는 것이다.<sup>20</sup>

신약 성서에서 사용된 명사형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모금이나 헌금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유한 사도적 의무를 디아코니아로 이해하였으며(고후3:3-6, 4:1, 롬11:13), 바울에게는 박해와 고통의 경험 역시도 사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디아코니아에 함께 속하는 것이었다.(고후6:4ff, 11:23ff) 나아가 바울에 의해 영향 받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직무 활동을 ‘디아코니아’로서 표시하였다(행 1:17, 25, 12:25, 20:24, 21:19)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위해 모금한 것을 ‘디아코니아’라 일컬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필요한 양식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한편 이방인 교회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교회공동체의 지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은 서로를 돌보는 관심 속에서 상대방의 각각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약성서에는 디아코니아가 하나님의 일 내지 예수의 일로서 증언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하나님을 위한 일 내지 예수를 위한 일로 증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아코니아 활동이 교회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증언된다. 즉 교회공동체의 디아코니아 활동은 하나님

19) L. Schottroff, "DienerInnen der Heiligen. Der Diakonat der Frauen im Neuen Testament", in: G. K. Schäfer/Theodor Strohm(Hg.), Diakoniebiblische Grundlagen und Orientierung. Ein Arbeitsbuch zur theologischen Verständigung über den diakonischen Auftrag(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anstalt, 1990), 232.

20) 김옥순, 같은 책, 25-26.

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장한다.<sup>21</sup>

신약 성서에서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 봉사자, 섬기는 자, 일꾼)는 대부분 바울서신에서 사용되었다. 봉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 섬기는 자)와 ‘둘로스’(δουλος 종)가 있다. 이 두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를 갖기도 한다. 종으로 표현되는 어근 ‘둘’(δουλ)의 명사형인 ‘둘로스’(δουλος)는 주님(κύριος)과의 관계에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면, 이와 달리 봉사자란 뜻의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는 누군가 불특정한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표현인 것이다. 바울은 명사형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란 단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봉사자로 보았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섬김에 대해 교회의 디아코노스로서 증언하고 있으며, 그는 거룩한 자들에 대한 디아코노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서 바울의 실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박해, 여행길에서 어려움들, 과로와 굶주림에 의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로 표현되었다(고후11:23f). 바울의 디아코노스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도적 봉사자들이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 봉사자, 섬기는 자, 일꾼)의 대표적인 인물은 겐그레아의 뵈뵈와 빌립보의 루디아이며, 특히 과부로서의 집사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로마서 16:1-2에 언급된 뵈뵈는 여성이었고 집주인이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도들과 교회의 일꾼들을 접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여성이었다. 교회공동체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했으며 특히 겐그레아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다. 또한 그녀는 떠돌아다니는 정치적 망명자들까지도 돌보아 주었다.(롬16:2) 그녀는 거룩한 자들을 맞이해서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며, 정치적인 망명자에게 대한 보호와 나그네들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도움을 주었다. 길거리에서는 교사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선교자로서 일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과 영적 은사가 디아코니아와 연결된 것이며,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부들은 정확하게 봉급을 받는 직무로서 ‘디아코노스’ 직제로서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과부들이 행하는 사랑의 돌봄 활동을 통해 예언적이고 선교자적인인 말씀 선포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랑의 활동 즉 디아코니아가 말씀 선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봉사와 선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집사들의 자격은 비난 받을 여지가 없는 가정의 삶을 사는 자로서 윤리적인 자질에 두고 있다(딤후3:8-12).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하기에 비난받을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집사들은 좋은 양심으로 신앙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마도 복음 선포와 가르치는 임무도 가졌을 것이다. 그 중에 여성 집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부양하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했다는 사실이다.<sup>22</sup>

21) 위의 책, 30.

22) L. Schottroff, "DienerInnen der Heiligen", 244f; 김옥순, 같은 책, 33-34.

## 2.2. 역사 신학적 전거

### 2.2.1.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루터와 칼빈

디아코니아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책을 쓴 울호른(G. Uhlhorn)은 “루터가 기독교적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sup>23)</sup>고 평가하였다. 독일교회의 대표적인 디아코니신학자 스트롬(T. Strohm) 교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자극과 동기 자체가 바로 루터가 이해한 디아코니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디아코니아 신학에 대한 루터의 출발점은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핵심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해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고 하였다.<sup>24)</sup> 곧 루터는 포괄적인 신학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참되고 의롭게 만드는 사랑과 자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의를 인간적인 행위로부터 따르는 의와 대조시킴으로써 그는 의로운 행위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스콜라학파적인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타락된 인간의 의는 인간을 교회적인 통치에 굴복시켰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를 방해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받아들임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대기상태와 그의 뜻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일깨운다.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사랑, 겸손한 하나님 경외 등이 루터가 새로운 인간의 삶의 특징으로 서술한 범주이다. 이 범주는 루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참된 인간의 모습의 변화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sup>25)</sup>

루터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sup>26)</sup>는 루터가 목회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룬 최초의 신학적 문서인데,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과 목회는 둘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의 일치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신학을 하나의 목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7)</sup> 루터의 이 글과 실제로 루터의 목회상담의 활동 내용을 비교분석한 옌치(Jentsch)는 루터에게 있어서 목회는 복음 아래서의 재난구호이며, 루터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돌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억압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목회자 루터는 억압의 현상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함의 원칙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루터가 이해한 목회 안에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자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 자유를 말하는 것이었다.<sup>28)</sup>

23) G. Uhlhorn, Die Christliche Liebestätigkeit, 2. Aufl. 1895(Nachdruck Darmstadt 1959), 515.

24) 이승열, “개혁교회의 사회봉사적 전통과 영향”,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제11회 전국목회자신학세미나(주제: 21세기 목회와 디아코니아) 발표논문, 2003, 2-3.

25) Theodor Strohm, “Theologie der Diakonie in der Perspektive der Reformation”, in: Paul Philippi/Theodor Strohm(Hg.), Theologie der Diakonie,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89.), 175.

26) 루터전집; WA54, 186, 9f.

27) Werner Jentsch, “Befreiende Brief”, in: Zeitschrift der Diakonisches Werk der EKD, Daikonie, Theorien, Impulse. Erfahrungen, Sonder Nummer 7. 2. Aufl. Verlagswerk der Diakonie GmbH Stuttgart, 1983. 50.

28) 위의 책, 51-52.

루터는 평상시에 편지쓰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일평생 총 2,585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양의 편지는 바로 목회적으로 쓴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들까지도 편지로 루터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질문하였다. 이에 루터는 편지의 답장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을 정신적으로 자유케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터는 변호사의 자격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의 자격으로 자기가 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 돕기를 원했던 것이다.<sup>29)</sup> 루터는 편지를 통한 봉사적인 목회상담에 크게 힘을 썼다. 공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 까지도 그의 상담을 원했다. 그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기적이지 아니다. 그러나 기적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 아니요, 위로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돌봄에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과 모든 천사들이 있을 때, 더 나은 돌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봄은 탁아소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등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목회 상담적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다. 시험 든 목회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 하였고, 한 부인에게 루터는 “연약한 믿음도 역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더하여 주었다. 루터는 “인간에게서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염려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야 하고, 믿음의 사랑은 그가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믿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랑의 도구를 가동시키지 않고, 도리어 믿는 자는 이미 실현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유보 없는) 봉사에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사랑은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다.<sup>30)</sup>

루터에게 있어서 화해의 섬김에는 상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을 위한 모든 가치의 가치변화가 뒤따른다. 십자가신학 이형기는 루터의 시편강의(1513-1515), 로마서강의(1515-1516), 갈라디아서강의(1516-1517)에서 루터의 복음주의적 신학노선이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칭의 교리와 십자가의 신학이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다. (참고: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78.이라고 불리우는 루터의 신학에는 구원과 창조에 동시에 관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화해의 디아코니아’(Diakonie der Versöhnung)는 하나님의 질서의 뜻에 따라 창조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랑의 의무’의 질서와 한계에 대한 스콜라주의적인 가르침이 루터의 가르침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sup>32)</sup>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란 무엇보다도 갱신된 도덕적 존재이고, 루터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란 무엇보다도 용서 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루터에게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관계의 회복을 말한다. 하지만 바울

29) 같은 책, 52.

30) Werner Jentsch, “Luther als Briefseelsorger”, in: Zeitwende 10/1967. 655-670.

31) 이형기는 루터의 시편강의(1513-1515), 로마서강의(1515-1516), 갈라디아서강의(1516-1517)에서 루터의 복음주의적 신학노선이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칭의 교리와 십자가의 신학이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다. (참고: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78.

32) 위의 책, 179.



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실천을 말한다. 루터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올바른 관계의 근거와 담보는 인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다.<sup>33)</sup> 루터는 사랑과 이성의 규칙으로서 황금률에 대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그 황금률은 그에게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구체화를 위한 열쇠이다. 그것은 사랑의 기본법이며 이성의 기본법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만드는데 유효하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인 성교회의 문에 내어 걸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반박문에서도 특별히 제41조에서 52조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온전히 새사람이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면제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면제부를 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였다. 루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사변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신적인 덕, 경건, 지혜, 의, 선 등을 아는 것 만으로는 영광의 신학에 불과한데,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인간성, 연약성, 어리석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역설이 핵심을 구성한다고 하였다.<sup>34)</sup>

루터에게서 디아코니아는 믿음의 분명한 열매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구결행위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명의 모든 위반의 기본스프와 수집이며, 모든 악덕의 시작이며, 탐욕의 뚜껑이며,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받기를 원하는 이웃사랑에 대항하는 것이다.” “구결행위는 인간의 가치에 저항한다: 구결행위는 직업교육과 노동창출을 통하여 나쁜 혐의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즉 질병과 부양자의 죽음 등을 통하여 운명적인 가난의 타락에 빠져 있는 것 둘 중의 하나이다.” 즉 사회가 질서 있는 형태 안에 있는 생명의 부양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의무적인 것이다. 많은 도시들에 이미 잘 정리된 빈민구호의 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의 디아코니적인 신학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성취시킨 사회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한 사회복지의 타개를 목표로 하였다. 루터는 경제와 교회공동체와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범위에 있는 수많은 관료들에게 그들이 창조의 전체 세계에서의 봉사자로서 더 향상시켜야 할 특별한 강조점을 주고 있다. 이 신분과 그들의 직분자들은 루터의 신학에서 “기독교사랑의 공동체적인 기사단”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랑은 계급과 같이 창조적인 법조문이 아니고, 그의 지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왕국의 기능인 것이다.<sup>35)</sup>

그리하여 루터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인 결인들이나 빈민가정들을 돕기 위하여 개별적인 구결행위를 금하고 교회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예를 들면 1522년에 나온 비텐베르크 헌금

33) 이형기, 『세계교회사(I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67-68.

34)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81-85.

35) Theodor Strohm, 위의 글, 181.

규정(Wittenberger Beutelordnung) 에 보면 모든 예배 때에 연보대를 돌려 헌금을 모아 빈민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고 모든 결핍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다. 1532년의 라이스니히 구제함 (Leisniger Kasten Ordnung)은 그곳 시의회의 요청으로 루터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모든 부동산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과 헌금들을 하나의 모금함에 모아 가난한 이들의 구제에 쓰는데 열 명의 이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구제함법이 유명해지면서 루터는 이를 빈민구제의 모델로 삼으라고 권장했으며 이 영향으로 독일 동부의 여러 도시들 (마그네스부르크, 브레스라우, 쾨니스베르크)과 뉘른베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아우그스부르크에 까지 파급되었다. 도시들마다 인정할 만한 사회구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곧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구제함에서 나온 돈으로만은 모든 빈민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루터의 교리에서 분명히 밝힌 봉사의 가르침들이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게다가 개신교회들은 빈민에 대한 봉사의 과제와 함께 학교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강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선사업에다 교육사업이 덧붙여진 것이다. 교육봉사는 사실 루터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격 형성을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한 데에 근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유명하게 된 것은 비텐베르크, 라이스니히, 알텐부르크, 뉘른베르크의 구제함 규정이다.<sup>36)</sup>

칼빈과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어서의 디아코니아와 집사직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학문적인 연구업적은 프린스턴신학대학교의 맥키(Elsie Anne McKee)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sup>37)</sup>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근본적이면서 변함이 없는 두 가지 직무는 예배와 실천적인 봉사를 위한 대표적인 지도자인 장로와 집사이다. 영적인 필요를 보살피는 장로와 세속적인 필요를 보살피는 집사는 각기 예배의 지도력과 이웃을 섬기는 지도력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장로와 집사는 일정한 공동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 두 기능은 서로 다른 은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이 두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의 직무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은 중생과 가난한 자에 대한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의 기능이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감독하기 위해서 선출된 평신도 교회지도자였다. 그들은 분쟁의 해결을 돕고, 상담하고, 권고하고, 삶과 신앙에서 견책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때에 치리했다.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권고하는 것과 교정하는 일은 단순히 국가에 위임할 수 없는 교회의 필수적인 교역의 기능이라고 주장했고, 집사직은 더 이상 신부들의 예배보조자가 아니라, 그들의 직무는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의 교역이며, 교회 안에서 영구적이어서 하는 직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교회들 사이에서 발전된 복수직제의 교리는 목사, 교사(신학박사로서 신학교 교수를 의미함), 장로, 집사의 사중직이 되었다.<sup>38)</sup>

36) Reinhard Turre, Diakonik: Grundlegung und Gestaltung der Diakonie,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1991), 18.

37) 그의 책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는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디아코니연구소에서 Erneuerung des Diakonats als ökumenische Aufgabe(에큐메니칼적인 과제로서의 집사직의 갱신)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 “Diakonie in der klassischen reformierten Tradition und heute”으로 번역되었고, 한국교회에서는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38) Theodor Strohm(Hg.), Elsie Anne McKee/Risto A. Ahonen, Erneuerung des Diakonats als ökumenische Aufgabe, (Heidelberg: DWI-Verlag, 1996.), Diakoniewissenschaftliche Studie 7, Diakoniewissenschaftliches Institut a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68-69; 참조: 엘시 N. 맥키/류태선, 정병준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76-84.

여러 교파의 전통들은 디아코니아를 위한 교회의 가시적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일부 교파에서는 빈민구제를 위하여 일하는 집사들을 두지 않기도 했다. 카톨릭교회는 집사란 명칭을 예배를 위해 일하는 직무로 사용했고,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특수한 직무에 부여하지 않고 디아코니아 기능을 모든 기독교인에게 확산했다. 루터파와 스빙글리파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디아코니아를 실행하기 위한 집사직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봉사직무는 평신도 지도자인 기독교인 국가 통치자에게 양도되었다. 결국 이러한 복지기능은 교회적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시의 기능으로 이해되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시민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던 급진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집사직을 설립하였지만 더 확대된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 기관들과 관계를 맺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는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해석은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겹칠 수 있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직제이론을 이끌어 내었다. 당시에 시의 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교회의 집사제도를 설립한 것은 실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사직제에 대한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이해는 이론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 인간복지를 위해 비교회적인 조직들과도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세계의 지구촌 안에서 윤리와 예배를 온전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최고의 유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맥키교수는 보았다.<sup>39)</sup>

프랑스 등지에서 제네바 시로 피난을 온 위그노파 피난민 집단들은 제네바시민들을 위한 시 빈민구제제도에 상응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비제도적인 형태의 집사직무를 조직화 하였다. 가장 초창기에 세워졌고 잘 알려진 난민 자선기금은 ‘프랑스기금’(Bourse française)이었다. 이것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피난민들에 의해 조직된 핵심자금 혹은 계정이었고 그들이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칼빈은 이 자금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자주 후원금을 기부했다. 난민들은 집사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의 임무를 시 빈민구제 제도와는 약간 다르게 구분했다. 즉 제도화된 공적 복지제도와 비제도적인 자발적 단체 양쪽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친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개혁교회 전통의 집사직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즉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공식적인 복지제도의 집사직과 비공식적인 사적인 복지를 맡았던 직분도 모두다 집사직으로 불렸고 인정되었다.<sup>40)</sup>

### 2.2.2. 독일 개신교회의 사회선교와 디아코니아

19세기 유럽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수공업과 농경사회가 무너지면서 산업화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이농 현상이 생겨났다. 도시로 급격히 몰려든 사람들의 삶은 주택난으로 인하여 판자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들끓었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더불어 가난한 도시민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39) 엘시 맥키, 위의 책, 84-87.

40) 엘시 맥키, 같은 책, 102-103.; 칼빈의 이중적인 집사직 즉 Hospital-General에서의 공적인 집사직과 비공식적인 사적 ‘프랑스기금’(Bourse française)에서의 집사직에 대하여 디아코니아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디아코니아연구소에서 통과된 허우경의 논문 Woo-Jung Hoh, Ein Vergleich des Diakonatsverständnisses von Johannes Calvin und Johann Hinrich Wichern, Diplomarbeit am Diakonie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1999.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교회들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층의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처지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당선언이 1848년에 나오자 이들을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빨려 들어갔다. 뷔헤른(J. H. Wichern)은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켜 희랍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머리’로 비유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생겨난 무산자 계층 즉 프롤레타리아의 문제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각종 범죄와 질병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타락으로 인한 세속화현상이 심각했다.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회봉사의 선구자들이 나타났다.

오벌린(Johann Friedlich Oberlin:1740-1826) 목사는 1740년 8월 31일 지금은 프랑스에 속한 당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태어났는데 알사스 지역 슈타인탈(Steintal) 계곡에 있는 발더스바흐(Waldersbach)에 있는 작은 마을교회에서 59년간 목회를 했다. 일평생 60여년 동안 담임목사로 목회하는 동안에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서 사회교육학적 차원에서 기술교육이나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시켰다. 식물채집, 관찰기록, 곤충의 생태계 연구와 관찰, 지역 내 광물의 상태 연구와 보석광물질 채집과 분석 보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공예 기술교육을 시키고 구호적 직업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발전시켰다. 그의 삶과 사상은 미국과 일본에도 전해져서 큰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그가 만든 청소년교육사업이 근대적인 최초의 유치원으로 설립된 것이었다.<sup>41)</sup> 즉 오벌린 목사는 마을교회의 목사로서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사회교육학적 접근을 통해서 기초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찰, 수집, 채집을 통한 환경교육과 뜨개질 같은 손쉬운 수공예 기술을 가르쳐서 돈도 벌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실재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에 힘썼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헤른후트 형제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 즉 디아코니아적 삶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목회자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테오도어 플리드너(Theodor Fliedner, 1800-1864) 목사는 사회봉사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전담직원으로 활용하는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카이저스베르트(Kaisethwerth)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였다. 가톨릭이 중심이 된 뒤셀도르프 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약 200명 되는 작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개신교인들의 모임인 개신교회를 하나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극심했던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영국에까지 모금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다. 1824년 이후 영국에 다섯 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사회적인 개혁프로그램, 영업적인 사회정치, 노동규칙, 국가적인 노동자보호법, 어린이노동의 제한, 공장 감독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는 설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41) 참조: Erich Psczolla, Aus dem Leben des Steintalpfarrers Oberlin, (Lahr-Dinglingen: Verlag der St.-Johannis-Druckerei, 1987), Erich Psczolla, Louise Scheppeler und andere Frauen in der Gemeinde Oberlins, (Lahr-Dinglingen: Verlag der St.-Johannis-Druckerei, 1988), Friedlich Lienhard (Hg.), Oberlin-Roman aus der Revolutionszeit im Elsass, (Stuttgart: Verlagsanstalt Greiner & Pfeiffer, 1922)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이다. 그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있는 것은 내가 여행에서 배운 제1과라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업혁명의 기술이 가정의 경영 중심이었던 수공업 체계의 가정경영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독일의 부인들과 처녀들이 공장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네델란드와 영국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대하여 힘을 얻는 곳에서 어떠한 사랑의 힘이 어떠한 여성과 모성적인 은사가 일깨워지는 지를 배웠다. 거기서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는 여성봉사자(Diakonisse) 제도를 알게 되었다. 영국의 감옥 개혁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의 활동에 감명을 받고 그는 독일의 수행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1833년 그는 카이저스베르트 감옥에서 석방된 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으로 유치원과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었다. 이것이 카이저스베르트의 여성봉사원(Diakonisse)협회가 생기게 된 효시였다. 그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어머니의 집’(Mutterhaus)은 신앙과 봉사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는데 여성봉사원(Diakonissen)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조금의 용돈만 받으면서 일했다. 이런 활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병자들의 간호를 현대화시킨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다. 디아코니센들이 플리드너 목사의 지도하에 300여명이 넘는 디아코니센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의 99개 어머니의 집들이 가입되어 있다. 개교회에서 간호사와 함께 목회자가 활동하면서 교인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목회적으로 배려하고 돕게 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sup>42)</sup>

그러나 교회 전체를 사회선교와 디아코니아적 사명으로 의식화시키고 신학적 능력과 실천을 이루었던 사람은 요한 힌리히 뷔헤른(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이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5세 때부터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고생을 하면서 괴팅엔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목사후보생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교회의 사정으로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는 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주일학교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다가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화 되는 현상에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비참한 상황을 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라우에하우스(Rauhehaus) 라고 불리우는 한 구호소를 설립하였다. 교육의 원칙은 수용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를 가르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었으며, 또한 가정적인 분위기와 그룹의 조직을 통해서 가정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교육과 직업적 기술교육과 정신교육 영적교육을 함께 이루어갔다. 그가 창립한 ‘형제의 집’(Brüderhaus)는 독일 남성적 사회봉사의 중심이 되었다.<sup>43)</sup> 사회선교(Innere Mission)를 통해서 뷔헤른은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속해있던 많은 대중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현실을 극복해보려고 하였다. 사회선교를 통해서 그는 국가와 교회가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고 더 이상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공산주의적 혁명에서 구원을 찾는데 빠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했다. 마르크스의

42) Ursula Röper und Carola Jüllig (Hg.), Die Macht der Nächstenliebe - Einhundertfünfzig Jahre Innere Mission und Diakonie 1848-1998, Im Auftrag des Deutschen Historischen Museums und des Diakonischen Werk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1998. 56-57. 이와 유사한 한국교회의 사례는 경북 영주시 풍기 성내교회(최갑도 목사)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목회간호사 제도이다.  
43) 뷔헤른 생애에 관한 참조자료로는 Gerhard Wehr, Herausforderung der Liebe - Johann Hinrich Wichern und die Innere Mission, (Stuttgart, Metzinger/Würt: Verlagswerk der Diakonie GmbH, Verlag Ernst Franz, 1983.); 박영환, 『기독교 사회봉사의 위기와 신학 정칙론 - 한국 독일 사회봉사와 선교신학』,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사단 출판부, 2001.), 51-104 참조.

‘공산당선언’이 발표된 1848년 9월 비텐베르그 성교회에서 모인 제1회 독일개신교회의 ‘교회의 날’(Kirchentag) 모임에서 그는 유명한 연설<sup>44)</sup>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가 사회전체 즉 사회선교가 곧 나의 일이며 교회의 과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과 신앙이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사랑을 도구로 해서 믿음의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듯이 그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행위 중 가정 고귀하고 순수하며 교회적인 것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의 이 유명한 연설에 감명을 받아 곧 사회선교중앙위원회<sup>45)</sup>가 1848년에 조직되었고 그는 이 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일 년 동안 준비하여 그 다음해에 독일개신교회의 사회선교에 대한 백서<sup>46)</sup>를 출판하여 내어놓았다.

뷔헤른이 집필한 사회선교백서에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에큐메니칼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사회선교의 기본은 재난 당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의 구주가 된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선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의 구원과 갱신이다. 그것을 위하여 사회선교는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인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정과 가족들의 기독교적 회복 그것과 관계된 모든 직접적인 교육, 재산, 사역, 등의 거듭남이 사회선교의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선교는 정치와 국가경제의 특별한 과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교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선교는 교회의 외부적 혹은 부수적인 생활표현이 아니고 교회 자신의 생활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잃어버린, 가출한, 방치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을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신앙적인 사랑의 정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선교의 한 근본적인 측면은 그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요소에 대적하는 싸움과 그것에 관계된 사탄이즘과의 싸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각 영역에서 뷔헤른은 과제를 사회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국가적인 영역에서는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실을 찾는 것, 죄수들의 보호의 확장과 출옥한 죄수들을 위한 도움의 확장, 유죄선고를 받은 죄수들과의 관계에서의 복음과 구원과 평화와 거듭남의 선포, 말과 섬기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령, 생명, 사랑, 지혜, 마음을 얻고 위로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의 파송 등이었다. 또한 교회적인 영역에서의 과제는 개교회에서의 활동, 대도시에서의 선교, 교회적인 지역단체, 가정의 경건회와 성경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예배에 참석과 성례전의 사용에의 초대, 성수주일을 축복된 것으로 알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 도시선교, 라우에하우스와 같은 어린이구호서 등이었다. 일반적인 도덕적 영역에서의 과제는 기독교의 도덕적인 타락을 저지하기 위하여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도덕적 타락과의 싸움과 활동을 목표로 한다. 복권, 오락, 낭비, 사치, 동물학대, 매춘, 독서의 무관심, 음주벽 등인데 이 영역에

44) Johann Hinrich Wichern, “Erklärung, Rede und Vortrag Wicherns auf dem Wittenberger Kirchentag”, in: Peter Meinhold (Hg.), Johann Hinrich Wichern Sämtliche Werke, Bd. 1. (Berlin und Hamburg: Lutherisches Verlagshaus, 1962), 155-171.  
45) Erich Beyreuther, Geschichte der Diakonie und Inneren Mission in der Neuzeit, (Berlin: Christlicher Zeitschriftenverlag, 1983.), 114-117.  
46) Johann Hinrich Wichern, “Eine Denkschrift über die Innere Mission der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 in: Peter Meinhold (Hg.), 위의 책, 전집 1권, 175-366. 필자가 이 백서를 분석한 하이델베르그대학 디아코니아연구소에서 디아코니아 디플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 참조: Seung-youll Lee, Die Grundgedanke der Diakonie bei Johann Hinrich Wichern und sein Gutachten über die Diakonie und den Diakonat, Diplomarbeit am Diakoniewissenschaftliche Institut Heidelberg Wintersemester 1993/94.

서의 사회선교의 과제는 권서와 거리설교자를 통한 타락에로 떨어진 딸들의 보호, 하인들 보호, 특별히 주인 없는 하녀들을 위한 망명보호소의 건립, 후회하고 있는 소녀들을 위한 막달라 마리아재단, 어머니의 집, 전체 독일의 절제단체 등이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회선교의 과제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대도시에서 빈민들을 올바른 부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움의 도시선교, 청소년들에게 구원하는 사랑의 행함, 어린이 예배, 어린이와 빈민구호와 자발적인 병자간호를 위한 구호서, 구호시설, 구호단체 등이다. 가정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들은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거칠고, 경박스런 신을 믿지 않는 부부, 사생아의 출산, 양심 없는 부모의 조혼을 통한 도덕적으로 방치된 어린이, 어린이살인, 여성매춘, 수치심 없는 절인과 도둑질 등이었다.<sup>47)</sup>

### 2.3.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조직신학적 전거

#### 2.3.1. 교회의 본질로서의 디아코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의 기구, 조직, 구조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형태 안에 각 시대와 상황의 총체를 담아내는 내용으로서의 본질이 있다. 이러한 본질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교회의 기초이며 근거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총체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영속적인 본질로서 보이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힘은 구체적인 사건화를 가능케 하는 동인이며, 동시에 이 구체화를 통하여 의미를 가시화하는 요소로써 형태 안에 그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sup>48)</sup>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케리그마(kerygma:말씀선포), 디아코니아(diakonia: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koinonia:교제)로 이해되었다. 훗날 교회의 발전 과정을 따라서 디다케(didache:교육), 미시오(missio: 선교)가 분리되고 중요한 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말씀선포인 케리그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교회의 생명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를 소홀하게 되었다. 세상적인 기구처럼 변질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편리와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었고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시키면서 교회 안에 자족하는 모습으로 머물게 된 것이다. 교회는 자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개방성 속에서 타자를 위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에 해당되는 말로써 선포의 행위, 즉 설교와 교리 지침을 뜻한다. 케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인의 삶을 추동해 내는 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돌봄 행동과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돌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돕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는 말씀 증언과 예전과 함께 삶의 외형화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의 말씀 선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실천적인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 없는 말씀 선포와 증언은 열매 없는 공허한 말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디

47) 뷔헤른의 사회선교백서 참조.  
48)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416.

아코니아 없는 예전은 하나의 기계적인 예배 위식 행위이거나 형식주의적인 경건성에 머물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삶은 예전과 말씀 선포가 함께 하는 제단을 그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뜻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말한다. 그러나 이 교제가 개인적인 욕구 해결 차원에 머물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로서 코이노니아는 복음과 섬김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두 그룹으로 분리된, 즉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들과 비장애인들 사이를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만찬적인 코이노니아의 사회성은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본질로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49)</sup> 하인츠 디트리히 벤트란드(H. D. Wendland)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증언과 섬김의 세 가지 본질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그 어느 활동도 분리되어서는 안된다”<sup>50)</sup>고 했다.

교회의 본질로서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의 기준과 척도로서 첫째는 화해사역으로서의 디아코니아이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화해의 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51)</sup>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었는데,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의 봉사는 사랑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신 화해를 고통당하며 죽음의 공포에 떠는 피조물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계약 공동체는 인간들과 피조세계에게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행동으로 증거 해주며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함께 사는 삶에 기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디아코니아이다. 예수께서 이 땅위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돌보는 봉사였다. 그리고 자신은 일생 섬기는 자, 봉사자로 사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기 비움 활동이어야 한다.<sup>52)</sup> 이는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공동체적인 형제자매 사랑의 돌봄이어야만 하며, 이는 사회사업과 서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로부터 위탁된 세속화된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으로 오해되어서도 안 된다.<sup>53)</sup> 셋째는 성만찬 예전공동체로서이 디아코니아이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로의 나눔과 돌봄을 통한 친밀한 교제공동체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 있는 예배이다. 그래서 교회공동체의 사회봉사는 특히 서로 간에 교제의 나눔인 성만찬적 예전 공동체를 그 출발점과 중심점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sup>54)</sup> 루터는 1519년 성만찬에 대한 설교에서 성만찬과

49) 김옥순, 위의 책, 415-420.  
50) H. D. Wendland, “Die dienende Kirche und das Diakonienamt”, in: H. Krimm(Hg.), Das diakonische Amt der Kirche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werk GmbH, 1953), 444.  
51) Th. Strohm, “Diakonie der Versöhnung-eine Perspektive sozialer Verantwortung”, in: J. B. Metz/ L. Kuld/ A. Weisbrod(Hg.), Compassion. Weltprogramm des Christentums. soziale Verantwortung lernen (Freiburg/ Basel/ Wien:Herder, 2000), 26ff.  
52) P.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werk, 1963), 183ff.  
53) P. Philippi, 위의 책, 244f.  
54) P. Philippi, Abendmahlsfeier und Wirklichkeit der Gemeinde, (Berlin: Evangelisches Verlagsanstalt GmbH, 1960), 171.



교회공동체의 봉사의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만찬의 교회공동체는 지체들의 고통을 서로 돌보는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이 원시 기독교공동체를 강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sup>55)</sup> 넷째는 침묵의 말씀으로서의 디아코니아이다. 교회의 본질인 사회봉사는 말씀에 대한 침묵의 증언으로서 행동이며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은 침묵의 사회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도움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순수한 도움 자체로 머물러야 한다. 기독교의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기에 도움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아가는 신앙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봉사는 그 주체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신앙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동인 것이다.<sup>56)</sup> 다섯째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전문적인 직제로서 집사직은 고대교회에서는 사도직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사제직의 비대함과 일방주의에 의해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었다. 그러나 부처, 칼빈, 뷔헤른에 의하여 사회봉사 즉 디아코니아를 전담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집사직을 회복하고 교회의 개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왔는데 진정한 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사도적인 집사직 안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교회와 목사직을 섬기고 돕는 사역으로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한다.<sup>57)</sup>

### 2.3.2. 하인츠 디트리히 벤틀란트(H. D. Wendland, 1900-1992)의 사회적 디아코니아

하인츠 디트리히 벤틀란트는 1900년 6월 22일에 태어났으며, 1924년에 하이델베르그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5년에 뮌스터대학에서 기독교사회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사회윤리였다. 특히 1954년에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2회 총회였던 미국 에반스톤 대회에서 그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책임사회의 의장으로서 교회간에 서로 돌봄과 난민 돌봄을 위한 세계적인 임무를 맡아서 에큐메니칼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독일에서는 디아코니아 신학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치즘과 칼 막스의 사회이론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경험하면서 개신교 윤리 가운데 사회윤리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통해서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무기력함을 느낀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개신교의 사랑의 활동이 바로 디아코니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나 국가의 이데올로기 아래 힘없이 굴복하여 지배당해야 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신학적 성찰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것은 바로 이론과 실천의 괴리였던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교회가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저 세상적인 개인구원에 대한 제약 속에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을 초래해왔다고 보았다.<sup>58)</sup> 벤틀란트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실천을 위한 핵심이론 범주로서 교회-사회실천이론, 교회론, 사회윤리와 실천신학이 서로 함께 연관을 가지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디아코니아

55) M. Luther, WA 2, 745;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440.

56) 김옥순, 위의 책, 441.

57) 같은 책, 442-443.

58) H. D. Wendland, Botschaft an die soziale Welt, (Hamburg: Furche-Verlag, 1959), 126.;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서울: 한울출판사, 2011), 356-357.

는 사회윤리와 연관 속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디아코니아 신학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봉사 실천이 사회윤리적으로 통합된 요소들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 원인들에 대한 해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그의 사회적 디아코니아는 19세기에 있었던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의 상황처럼 현대사회의 복지상태에 있어서도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빈곤상태에 대한 통찰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 실천을 디아코니아 신학으로 통합 내지 사회신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기신 섬김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디아코니아 활동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에 의해서 존속하는 교회요, 신앙인의 행동이다. 이는 디아코니아 활동이 없는 교회공동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교회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처럼 벤틀란트의 기독교론 속에서 봉사자이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교회공동체가 봉사공동체로 되게 해준다.<sup>60)</sup> 그러므로 벤틀란트는 신앙인들을 개인주의적인 협소함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디아코니아 활동으로 인도한다. 함께 사는 존재로서의 신앙인의 사회적 연관은 신앙인들을 책임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개혁으로 이끌어 간다.

### 2.3.3. 파울 필리피(Paul Philippi, 1923-)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디아코니아

파울 필리피는 1923년 11월 21일 비벤뷔르겐(Siebenbürgen)에 있는 크론슈타트(Kronstadt)에서 태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 입대하여 전쟁과 포로생활을 경험했고, 에어랑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이델베르그대학 신학부에서 조교생활을 하다가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1971년에는 디아코니아연구소 제 2대 연구소장이 되었다. 그의 연구도서 “그리스도중심적인 디아코니아”가 기독교 중심의 디아코니아 신학의 중요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디아코니아는 교회공동체의 디아코니아를 강조한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디아코니아가 복음의 전체를 올바르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으로부터 정확한 기독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도 전개하였다. 그는 “누구든지 디아코니아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려면 올바른 교회공동체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sup>61)</sup>고 했다. 필리피는 디아코니아가 교회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는 교회론이라고 보았다.<sup>62)</sup>

필리피의 디아코니아 신학의 단초는 성서적이고 교회적인 전승을 고려하는 디아코니아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서의 복음을 신앙인의 봉사의 삶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인가? 엄중히 물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수동적으로 고난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시는 하나

59) H. DF. Wendland, Grundzüge der evangelischen Sozialethik, (Köln: Bachem, 1968), 53.

60) 김옥순, 위의 책, 361.

61) P.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werk, 1975), 249.

62) Th. Strohm, “Impulsgeber des diakonischen Wiederaufbaus, Die Diakoniewissenschaftler Herbert Krimm, Heinz Wagner, Paul Philippi”, in: V. Hermann/H. Schmidt (Hg.), Diakonie in der Perspektive der verantwortlichen Gesellschaft. Beiträge zur sozialen Verantwortung der Kirche II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Winter, 2003), 103.; 김옥순, 위의 책, 390.

님의 최종적인 계시자이다.<sup>63)</sup> 필리피는 섬기시는 메시야에 저항하는 인간의 성공신화적인 메시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였다.<sup>64)</sup> 이처럼 필리피의 인간의 척도인 사고와 방법으로 형성된 모든 종교적 사회적 도식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척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섬기는 자”를 근거로 세운 기독교론은 신앙인과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적인 디아코니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디아코니아의 교회론적 자리매김을 위해서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표지(nota ecclesia)로 보았고, 디아코니아의 표지는 연대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공동체로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강조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척도에 의해 수행하는 돌봄의 봉사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을 향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리피에게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는 디아코니아 삶으로써 구체화 된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곧 예배적인 의미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4.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의 하나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아

몰트만은 1926년 4월 8일 독일 북부 항구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생활을 경험했다. 괴팅겐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고, 부퍼탈대학과 본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튀빙겐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고 거기서 은퇴했다. 많은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고 한국 신학자 7명이 그의 제자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몰트만의 신학사상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변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역이다. 그에 의하면 전통신학이란 개인의 구원과 미래에 관심하였고 세계변혁에 대한 약속의 잠재력을 연결시키지 못했다.<sup>65)</sup> 그러나 몰트만은 여러 저서를 통해서 디아코니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아”<sup>66)</sup>라는 저서를 통해서만 디아코니아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디아코니아에 관한 핵심적인 테제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제자직으로서의 디아코니아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 위에 있는 것이다. 둘째, 가난한 자, 병자, 소외된 자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인식되고 우리를 자유로 부른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십자가 아래서의 디아코니아는 고난을 나누고 받아들이며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를 죽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지평 위에서의 디아코니아는 근거를 디아코니아적 교회에 둔다. 다섯째, 병든 자들에 대한 특수한 디아코니아는 근거를 디아코니아적 교회에 둔다. 여섯째, 디아코니아는 치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긴다. 일곱째, 시설

63) P. Philippi, Diaconia, Über die soziale Dimension kirchlicher Verantwortung, Hg. v. J. Alber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6.; 김옥순, 위의 책, 393.

64) P.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110.

65)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오산: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09), 228.

66) Jürgen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GmbH, 1984); J. 몰트만/정경훈 옮김,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안에 있는 사회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디아코니아는 대변인의 원칙에서 벗어나 디아코니아적인 교회공동체를 향해야 한다. 몰트만은 고이토니아 공동체 안에서 “아래로부터의 디아코니아”를 말한다. 이는 만인사제직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는 디아코니아의 성격을 하나님 나라 지평 위에서 화해와 해방에로의 봉사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디아코니아화, 디아코니아의 교회화를 구분한다.<sup>67)</sup> 몰트만은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봉사도, 봉사가 없는 소망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소망을 사회 안에서의 디아코니아와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소망’은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의 소망 안에서 특정한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지상에서 결부되어 치유하고 의를 실현하는 사랑에 대한 소망인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난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사랑에 대한 환타지가 없는 봉사란 맹목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sup>68)</sup> 몰트만은 병든 사회에 대하여 치유하는 힘을 각성시키는 오직 하나의 치료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대체할 만한 치유의 능력을 찾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아래로부터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고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며, 협력해서 함께 노동하는 것이고, 바닥에서부터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존엄성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자신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들 자신에 의해서 운명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병든 사회의 치료가 시작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 이웃관계 속의 조력은 그들 고유의 디아코니아 망을 조직하여 기초공동체가 형성 되고, 사회적으로 상실된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펼쳐진다고 보았다. 그 실례를 몰트만은 19세기 로이트링엔(Reutlingen)에서 슈바빙(Schwabing) 지역 디아코니아의 아버지인 구스타프 베르너(Gustav von Werner) 목사가 산업사회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 구축했던 조합적인 공장 노동자들 자신의 자주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sup>69)</sup>

#### 2.4. 공적책임과 디아코니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뜻이 무시되는 가운데 이기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자립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더욱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차이가 심각하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못 배운 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의 의미와 가치는 너무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일반사회에서의 사회복지지는 철저히 그 나라와 사회의 사회복지법에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정치체제와 사회의 형태에 따라서 그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디아코니아는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며, 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67) 홍주민, 위의 책, 234.

68) J. 몰트만/정경훈 옮김, 위의 책, 49.

69) 위의 책, 50-51.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외 없이 본질적인 책임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사명과 과제이며 책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까지도 개개인 그리스도인과 개교회 그리고 범에큐메니칼적 차원에서까지도 공적책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디아코니아는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종말론적인 신앙의 표현으로서 또한 공적인 책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디아코니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행위이다.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의 선구자와 개척자로 불리우는 요한 힌리히 뷔헤른의 생애와 역사 그리고 그의 사상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디아코니아, 사회선교의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sup>71)</sup> 그리고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이기적이며,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는 의미에서도 공적책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몰트만에게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종말론적 시야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참여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한다.<sup>72)</sup> 그리고 몰트만의 하나님나라 사상은 디아코니아와 연관해서 공적책임사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sup>73)</sup>

특별히 교회의 공적책임은 교회의 본질적인 이해 속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다양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책임과제 속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봉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교회의 공적책임과제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과 직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에큐메니칼 교회가 ‘삶과 봉사’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해 온 것이다. 1968년 울산라 제4차 WCC 총회 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절정에 달했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첨예화되었다. 194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책임적 사회가 세계적 크기의 책임적 사회로 확장되었고 그때부터 해방신학이 싹터 올랐다. 1970년대에는 울산라의 사회정의, 경제정의, 평화 이외에 창조세계의 보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75년 나이로비 제5차 WCC 총회는 “정의, 참여, 지속가능한 사회(JPSS)”로 인종주의, 여성차별, 인권문제 등과도 연관을 시켰다. 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는 JPSS가 JPIC로 바뀌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으로 창조보전이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1991년 캔버라 제7차 총회에서는 역시 세계적인 생태학적 위기가 세계적인 사회정의의 위기와 경제정의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98년 하라레 제8차 WCC총회에서는 폭력극복 10년: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 가는 교회 2001-2010을 제안했고,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 폭력을 문제 삼았으며, 이 운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

70) 이승열,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공적책임”, 2016년 전국은퇴목사회 출판예정 논문원고.

71) Seung-Youl Lee, 『Die Grundgedanken der Diakonie bei Johann Hinrich Wichern und sein Gutachten über die Diakonie und den Diakonat, Diplomarbeit am Diakoniewissenschaftlichen Institut Heidelberg Wintersemester 1993/94. 참조

72) 이형기, “벤과 몰트만의 공적신학 비교연구”, 이형기 외 8인 공저, 위의 책, 334-377 참조.

73) Jürgen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er Verlag, 1989., J. 몰트만/정종훈 옮김, 『하나님나라의 지평 안에 있는 사회선교』, 대한기독교서회, 2000.

회(통합) ‘생명살리기 운동 10년(2002-2012)’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10년(2012-2022)’의 근거가 되었다.<sup>74)</sup> 국내에서의 생명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 운동은 결국은 개교회 중심의 교회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해 온 잘못된 목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교회의 본질적 책임과제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목회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교회에서의 사례소개

#### 3.1. 완도성광교회(정우겸 목사): 지역사회를 조직적으로 섬기는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모델

완도의 성광교회는 현 담임목사인 정우겸 목사가 전도사 시절 완도중앙교회에 출석하던 40 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 창립하여 오늘날 지역사회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부터 이 교회는 담임교역자의 목회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평신도들로 구성된 다양한 소그룹활동을 활성화 하는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발전해 왔다. 이토록 되기까지는 철저한 준비와 분석, 미래지향적인 준비와 인재양성, 성도 한분 한분에 대한 은사발견과 은사에 적절한 봉사의 기회부여와 관리 등을 통한 신앙의 정도와 은사에 따라서 힘들지 않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고 관리해 오는 목회적 전략과 철저함으로 인하여 현재는 약 860여개의 소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역사회와 연관을 갖고 있는 소그룹만 해도 120여개가 넘을 정도로 철저함을 엿볼 수가 있다.

우선 교회의 공식적인 부설기관이 28개나 된다. 성광어린이집, 완도 청소년 문화센터 사단법인 ‘꿈틀’, 성광 새빛문고(도서관), 성광선교회, 청해요양원, 청소년 공부방 ‘하늘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성광 지역아동센터, 성광 노인 복지센터, 다문화 가족 쉼터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 성광 아이맘 스쿨, 성광 다문화 도서관, 건강 가정 지원센터, 성광 자원봉사센터, 아이돌보미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인터넷 선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외국인근로자 사랑센터, 성광사회복지 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개인전도 훈련원, 평신도사역 목회연구원, 복지기관협의회, 바다 살리기 운동본부, 성광평생교육원, 등이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은 10개나 되고 이 기관과 시설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 200여명이 모두 성광교회의 교인들로서 미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하여 취득하고 준비해온 분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4) 이형기,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적책임-에큐메니칼 운동에 나타난 신학의 관점에서”, 이형기외 8인 공저,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103-112.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이 12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소그룹의 이름을 거론하자면, 전교인 헌혈추진위원회, 장기 기증 추진위원회, 장학 사역위원회, 사회 불우시설 봉사위원회, 사랑의 바자회 기획위원회, 주택수리 사역위원회, 이사 지원위원회, 구제 사역위원회, 독거노인 결연 및 후원위원회, 소년소녀 가장결연 후원위원회, 환경 보호사역위원회, 지역사회 문제 대책위원회, 지역사회 발전 연구위원회, 지역 문제 발굴위원회, 지역단체와 기관협력위원회, 지역 행사지원 사역위원회, 지역 문화 사역위원회, 지역행정 협력위원회, 지역봉사 연구기획위원회, 지역주민 친화위원회, 지방 자치 연구위원회, 대 완도 표어사역위원회, 해조류 박람회 후원위원회, 장묘 문화 개선위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위원회, 복지사역총괄기획관리위원회, 남북통일 연구 및 대책위원회, 여름철 해변축제추진위원회, 동계영화축제위원회, 귀화 한국인 사랑위원회, 운전기사 사랑위원회, 어르신 사랑잔치위원회, 거리 청소위원회, 지역 미화위원회, 지역사랑 협력위원회 등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세세한 지역사회의 봉사기회를 평신도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참여하고 관리하는 철저한 목회를 해 가고 있으며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75)</sup>

이러한 성광교회의 디아코니아 목회와 섬김은 개혁교회와 바른 신앙의 가치를 들고 설립되었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신이 7대 비전에 잘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광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영역을 구분하여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 중심, 교인중심, 사역중심의 교회입니다.
2. 성광교회는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듯,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역과 사회를 구원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일하는 교회입니다.
3. 성광교회는 평신도 사역과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달란트(재능,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800여개의 사역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4. 성광교회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창립 이듬해부터 힘써 왔으며 현재는 매년 400명 내외의 불신자들을 개인전도로 등록시키고 있고, 금년에도 교회와 선교사를 연간 1억여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5. 성광교회는 지역과 주민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직접 섬기고자 두 개의 사단법인과 25개의 복지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역을 계속 발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6. 성광교회는 창립 이래로 언제나 지역문제를 해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다살리기, 환경보호, 지역경제 살리기, 인재 양성, 애향운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7. 성광교회는 암울했던 80년대에 이 지역에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교회연합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운동, 청소년 순결운동, 가정회복운동, 근검절약운동, 깨끗한 정치운동, 바른 의식운동, 등을 통해 나가며 민족의 미래에도 애정을 쏟을 것입니다.<sup>76)</sup>

75) 2016년 완도성광요람 참조

76) 2016년 9월 18일자 주보 참조

### 3.2. 광양 대광교회(신정 목사): 사회봉사/사회복지를 통한 전도와 교회부흥

광양 대광교회는 광양제철이 소개하고 있는 광양의 신도시에 1988년에 세워진 교회로서 앞서 10년 간 목회했던 전임 목회자 시절 교회건축까지 완공을 하였으나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하여 목회자가 사임을 하게 되었고 현재 담임목사인 신정 목사가 부임하였다. 지역 사회 내에 워낙 교회분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준 영향으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신목사는 전도지를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교회의 특별한 점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이다. 소위 트리플 A라고 알려진 것인데 아쿠아(물), 아로마(향기), 아가페(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목회철학으로 결정하기까지 3년 동안 일 년씩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주일설교를 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모두 조사하여 설교하면서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나름 독창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목회철학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즉 생명력 있는 물과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적시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발하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는 처음에는 광양제철소에 다니며 밤샘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고 취침을 하게 되어 아기를 업고 추운 겨울 밖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본 담임목사가 사정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급히 교회 예배당 건물 중 한 공간을 마련하여 엄마와 아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엄마와 아기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 엄마와 아기학교에 다녀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되면서 자연 어른들도 많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특히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서 문화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이 교회는 극장식 다목적 카페를 설치하였다. 영화상영, 음악회, 연극공연 등이 가능하고 잔치와 파티도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재가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민관협동으로 거버넌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먼저 아쿠아 사역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지향적 고백이 정리되어 있다.

물과 같은 교회를 지향했다. 물의 고귀함을 잊고 살지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물의 의미, 물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낮은 곳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향한다. 물은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이 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다른 것을 비춘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울과 같은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주변을 서서히 적신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적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은 목마름을 해결해준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의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열에 민감하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성령의 열기로 끓는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스며든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는 물과 같이 작은 틈 속으로도 스며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지향한다. 물은 곧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아로마 사역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는 비전과 소명이다.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며 더 이상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지양하고 교회 밖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향기는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소망을 담은 사역이다. 이 사역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모든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게 임산부학교, 아로마탁아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꿈샘 지역아동센터, 아로마 상담센터, 지역웰빙센터, 노인일자리아사업, 아름다운 가게, 유기농 매장운영 등 선한 사마리아사람의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페 사역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역인데, 모든 아쿠아 사역과 아로마 사역의 배경이 되는 사역이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역이다. 아쿠아 사역이나 아로마 사역의 목적이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역인데 2011년에는 헤아림, 2012년에는 발걸음, 2013년 두드림, 울림, 떨림, 2014년 내일을 품는 교회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사랑의 실천을 계속 이루어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사업으로 임산부학교, 엄마랑 아기학교, 아장아장학교, 하늘샘이 있다.

### 3.3. 성암교회(조주희 목사): 지역사회 욕구도 조사에 근거한 사회봉사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암교회 담임목사인 조주희 목사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목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교회사회봉사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욕구도를 조사, 분석하는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성암교회의 제직회 조직, 예산, 사업내용 등을 분석했고,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교회에 원하는 희망사항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휴식공간인 조용한 카페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주택지역인 지역사회에는 그 흔한 커피숍 하나 찾기 어려운 주택가였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그 당시 이 컨설팅의 감수를 맡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철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정신과 자세를 갖추었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조사 연구된 결과를 받아들여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해서 조용한 카페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름도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바오밥 카페’로 지었으며, 중요한 것이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 카페를 이용하거나 문을 다거나 하지 않았으며, 실내 인테리어도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평범한 시설로 하고 교회다운 특징적인 상징물이나 장식도 일체 하지 않았다. 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는 지역사회의 아이들

을 위한 작은 도서관(다섯콩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염려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교폭력 없애는 운동도 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성암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섬기고자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 3.4. 부천 새롭교회(이원돈 목사):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망 목회를 통한 마을 만들기 목표

부천의 새롭교회 이원돈 목사는 지역교회가 교회를 넘어서 한 생명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밖 지역의 시민사회나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협동조합, 마을만들기와 결합되면서 어떻게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망 목회가능할까를 고민하여 연구하고 적용해서 실천을 성공적으로 해 가고 있는 목회자이다. 비록 본교회의 등록된 성도의 수는 40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 마을의 주민 전체를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마을 만들기 목회를 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의 사례는 목회자가 철저히 신학적으로 고민하며, 이 시대의 특징을 알고 신학적인 신념화 된 소신을 목회에 적용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발전해 가고 있는 한 과정의 교회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완성이 되지 못했으나 얼마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돈 목사는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극도로 착취하는 세계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내물림과 따돌림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무한 포용과 에토스를 가지고 가난한 자, 문맹자, 절름발이, 앓은뱅이, 문둥이, 창녀, 세리, 귀신들린 자, 등 사회적 종교적으로 비난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예수살기는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의 예수살기의 과제로 첫째 약한 생명들과 연대하여 지배체제의 불의에 대한 도전과 저항, 둘째 예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헌신을 통해 교회를 참된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 셋째 종교적 세속적 파시스트들의 획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타(비)종교인들과 연대하는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교회가 힘을 모아 진력해야 할 일차적 선교 사명은 기독교 교세확장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공동체 실현이며, 십자군적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이다. 구체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현, 지구촌 빈곤극복을 위한 청빈과 예수살기 운동의 전개라고 보았다.

이원돈 목사는 세계교회의 신학적 흐름과 특별히 생명신학과 연관한 에큐메니칼 신학의 흐름과 경향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하여 교단의 ‘생명살리기운동 10년’(2002-2012)이나 이어지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자신의 목회에 접목시켜 중요한 핵심적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수용하였다. 핵심적 용어로 ‘생태계’, ‘생명망’, ‘지역 에큐메니즘’,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작은교회 운동’ 이러한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명평화마당 혹은 청어람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심포지움과 세미나 등에 열심히 다니

며 공부도 하고 사명감도 키워갔다. 그리하여 탈성장시대의 새로운 목회생태계를 꿈꾸면서 건강한 비전을 세운 것이 바로 생명망을 짜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섬기고 나누며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목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원돈 목사는 1986년 창립 때부터 약대동 지역의 무주택 전월세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맞췄다. ‘새롬어린이집’을 처음부터 시작하였고, ‘새롬 만남의 집’을 만들어 방과후 공부방을 열었고, 마을 도서관인 ‘약대글방’을 열었다.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묶어 새롬교회 지역선교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사업 주관자가 되었고, 약대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모임과 약대초등학교, 새롬 가정지원센터를 연결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시대에 지역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약대동 마을도서관을 ‘신나는 가족도서관’이라 이름을 지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공부방,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교회를 잇는 복지교육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마을, 도시 중심의 복지, 교육,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여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인문학 카페’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격주로 ‘수요 인문학 카페’를 개설했다. 성서아카데미를 통해서 불신자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성서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롬교회는 마을 문화운동으로 마을을 디자인 하기 위한 어두운 빈민가 골목에 벽화를 그렸고, 골목축제, 마을 놀이터,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꿈꾸며 다양한 방식으로 섬겼다. 마을글방,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가족도서관, 가정지원센터, 은빛꿈터, 어르신 밥상공동체, 녹색장터, 인문학 카페, 유아 영어모임 등이 생겼다. 특별한 것은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해서 2008년부터 마을여름학교를 열었는데 복지프로그램으로 인문학교실, 벽화교실, 건강교실, 등이 진행되었는데 마을문화운동을 하면서 마을의 교회, 어린이집,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극단 등이 힘을 합쳐서 “뽕사리 영화제”라는 마을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담쟁이마을”이 문을 열었고 연극공연이 가능한 소극장, 교육극단 토크, 제이컴퍼니, 누보공동체, 아하체험마을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각자의 지향하는 바를 열심히 이루어 가고 있다. 즉 문화공연 및 전시,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통해서 ‘달나라토끼 떡카페’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었다.<sup>77)</sup>

77) 갈릴리신학대학원에 제출된 이원돈 목사의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참조.

## 4. 나가는 말

이번 디아코니아 엑스포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단순한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성장의 수단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디아코니아를 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본질 중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역이 유기적이 되어 예배도 코이노니아도 디아코니아도 디다케도 선교도 더욱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 져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시대가 되었고, 일반사회로부터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위축되어 전도도 힘들게 되었다. 수퍼메가처치인 초대형교회 중심으로 몰문화와 더불어 작은 교회들이 위협을 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나름대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아적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저출산 시대에 교회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운영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 자연히 미래의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에 눈을 뜨고 진정 지역사회를 섬기며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섬김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다.



## [논찬]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

박인갑 교수(실천신학대학교)

1. 이승열 박사님은 일찌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디아코니아학을 연구하시고, 그 동안 소속 교단의 사회봉사부 총무로서 오래도록 섬기시는 가운데, 실제의 목회현장 속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디아코니아적 신학을 바탕으로 교단차원의 정책을 수행해 오신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분이시다. 현금의 한국 개신교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에 이 박사님의 수고는 더한층 절실한 상황이다. 아직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널리 알려지기조차 못한 디아코니아 신학을 위해 앞으로도 크게 헌신해 주실 분이시기에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2. 우선 이 박사님이 발표하신 논문의 제목인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에 맞게, 먼저 신학적인 전거로서 그 바탕을 신구약 성서를 통해 살피고, 기독교역사적 관점에서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전거를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전거로서는 특히 종교개혁시기의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살핀 후, 독일개신교회의 사회선교로서의 디아코니아적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론의 핵심으로서의 디아코니아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유수한 디아코니아 신학자 세 사람인 벤틀란트와 필리피 그리고 현대의 조직신학자 몰트만의 디아코니아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신학적 소개를 통해 이 박사님은 한 가지 핵심적 관점에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교회의 본질로서의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나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 동안 실제로 경험하신 국내의 교회들 중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네 곳의 디아코니아적 교회들을 그 증거로 소개한다.

3. 이 박사님은 먼저 구약성서 속의 구성체 개념들을 찾아본 후 그 구성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용어와 개념을 알아보고 있다. 비록 당시 직접적인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씨족사회로서의 ‘족속’ 개념과 지파공동체로서의 ‘지파’ 개념을 살펴본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개념은 상당히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섬김’의 내용으로서의 율법에 나타난 자세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법체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거기에는 십일조 제도를 비롯하여 이자금지법 등등의 법들이 소상히 담겨져 있다. 그리고는 그러한 율법정신을 충실히 실행하는 한 사례로서 욥을 들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실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29~31장)에 잠시 언급된 부분이 “욥의 유언서”에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회적 복지현상이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서 제기 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박사님의 논의 중 야훼 하나님 자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하는 ‘디아코니아적 하나님’ 이심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4. 이어 신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어원풀이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수오심의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즉 섬김의 최고절정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곧 구속사건이기에, 결국 ‘섬김’과 ‘구속’은 하나의 맥을 가진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인은 봉사 없는 생명 구원을 바랄 수 없으며, 또한 생명구원과 유리된 봉사는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신약성서 속의 다양한 디아코니아적 헌신의 일들과 디아코니아적 인물들을 열거하며 소개하고 있다. 결국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스도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교회공동체의, 섬김의 일’인 디아코니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성 디아코노스와 여성 디아코노스를 소개하면서, 이들 디아코노스들이 섬겼던 두 가지의 양태, ‘말씀섬김’과 ‘사랑섬김’의 조화를 언급해 주면서 신약적 전거를 마무리 한다.

(여기서 참고로 결국 초대교회는 말씀섬김과 식탁섬김의 두 방향의 디아코니아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동등한 하나의 디아코니아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사상을 가진 마르다와 개혁사상을 가진 마리아의 예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에 의해 여성의 지위가 인정되고 승격 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섬김(봉사)에 대한 신약성서적 개념이 가부장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할지라도, 여성은 일반 제자군에는 속하였다고 보아지나(예: 베드로의 장모) 사도군에는 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예수를 통해 주도된 하나님나라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아쉬움 속에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5. 성서적 바탕에 따른 디아코니아가 역사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 나타났는 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 박사는 종교개혁기의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뒤, 교회를 중심으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독일의 경우를 소개해 준다. 먼저 루터를 언급하면서 당시 토미즘과 스콜라적 신학사상의 영향으로 공덕사상에 빠진 중세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여, 루터는 십자가신학에 의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섬김의 사상을 부각시킨다. “면죄부를 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루터의 95개조의 논제를 언급하면서 이 박사는 루터에게 나타난 믿음의 분명한 열매로서의 디아코니아를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구걸행위를 금지시키고 반면에 구제를 위한 연보함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실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부각시켜준다.

6. 이러한 루터의 개혁적 영향으로 나타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직접적인 현상이 바로 독일인 만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독일의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당시 루터의 개혁사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말씀의 실천적 의식의 결여로 인해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교회를 비판하며 나선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은 교회의 평신도들을 깨우기에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독일교회의 비루터적인 현상에 대해 간과해버림은 아쉬움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 박사님의 논문에 나타나는 초기 오벨린과 플리트너 부부를 위시한 뢰에와 베르너 등등의 디아코니

아직 선구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 제대로 된 디아코니아적 사역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어 낸 이가 바로 요한 힌리히 비션(뷔셔언, 비셔언, 비셔른, 비헤른, 뷔헤른)이다. 이 박사는 이들의 사역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들려준다.

(여기서 참고로, 교회공동체가 국교회 되면서 로마의 통치구조의 영향으로 수직화되어 집사직의 디아코니아적 사역의 동반자적 위상이 깨어져버린 데다, 이어진 중세의 수도원운동의 여파로 보상심리로 나타난 공덕사상이 칭의론으로 변질되어 결국 사제일방주의로 치닫게 되고 말았을 때,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만인사제론에 근거한 집사직 회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일변도의 칭의론에 묻혀 결국 디아코니아적 개혁의 의미가 다시 상실되고 말았다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뒤이어 나타난 신앙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디아코니아적 각성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7. 이승열 박사님이 논문에서 성서적이고 교회사적인 전거들을 통해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느냐에 그 사명이 있는 것이라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그러한 본질적 사명들은 대체로 케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마르투리아로 정리 된다. 이들이 강조점에 따라 때로는 축소되고 확대되며 표현된 것이다. 위에 열거된 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사명적 요소들 중, 앞의 세 요소를 디아코니아학에서는 ‘디아코니아로구’라 하여 ‘말씀의 섬김’이라고 정리하고, 뒤의 세 요소를 ‘디아코니아 아가페스’로 묶어 ‘사랑의 섬김’이라고 정리 된다. (독일어로는 앞부분을 Gottes-Dienst, 뒷부분을 Naechsten-Dienst 로 표현한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자 사명은 한 마디로 ‘디아코니아’(섬김, Dienst)로 요약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이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개방성 속에서 타자를 위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로서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의 기준과 척도로서 첫째는 화해사역으로서의 디아코니아,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디아코니아, 셋째는 성만찬 예전공동체로서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넷째로 침묵의 말씀으로서의 디아코니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자들의 디아코니아적 사상들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H.D. 벤트란트를 통해서 이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의 실천적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P. 필리피를 통해서 그것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J. 몰트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나라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8. 이 박사의 설명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 사회현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자립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분배의 정의가 없는 가운데,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못 배운 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권리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의 의미와 가치는 너무나 절실한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더욱이 “기독교의 디아코니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

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외 없이 본질적인 책임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사명과 과제이며 책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개개인 그리스도인과 개교회 더 나아가 범에큐메니칼적 차원에서까지도 공적책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 박사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이 디아코니아는 철저히 하나님나라의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행위이다. 사회선교의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이기적이며,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는 의미에서도 공적책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의 선구자와 개척자로 불리우는 요한 힌리히 비션이 일관되어 중요시하는 ‘하나님나라’ 사상은 물론, “교회는 종말론적 시야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참여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해야 한다”는 몰트만의 하나님나라 사상은 디아코니아와 연관해서 공적 책임사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공적책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공적책임은 교회의 본질적인 이해로 명확해져야 한다는 이 박사의 논지는 정확하다고 본다.

9. 드디어 이 박사는 지금까지 논의된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전거와 역사적 현상에 이어 독일에서 이루어진 디아코니아의 실천적 모습을 통해 디아코니아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로 교회는 이웃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요 핵심기능이 디아코니아이다. 이웃섬김의 대상은 공동체 내부와 외부가 함께 포함되고, 섬김은 말씀선포의 섬김과 식탁봉사의 섬김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현실은 한 쪽 날개를 상실한 격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이 박사는, 그동안 한국에서 일구어낸 작은 사례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짧은 역사에서부터 그 동안의 디아코니아적 몰이해로 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교회의 본질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한국 개신교회는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 되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지역사회를 품고 지역사회를 목회의 중심영역으로 개척 개발 발전시키는 디아코니아적 목회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디아코니아를 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아적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끝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사실이,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확신이다.

10. 이승열 박사님이 이번에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하여, 디아코니아학의 안목으로 개신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목회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다시 새롭게 부각시켜주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따끈한 실제적 사역들의 예시를 통해 개신교회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체현상으로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는 한



국개신교회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는 고무적인 일로 사료되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디아코니아학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고도 올바르게 회복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 가운데 바라는 바입니다.

11. 디아코니아 운동은 성서에 기초한 거룩한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일구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 노력한,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거요 목표이자,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신앙관과 구원관의 귀결이요 목표라고 보기에, 오늘의 위축된 한국 개신교회를 소생케 할 유일한 희망이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의 신앙을 가르쳐온 한국교회에 새로운 불씨로 지펴야 할 가장 중차대한 핵심적 사안이라 사료되기에 이번 이승열 박사님의 연구는 더욱 귀하다 하겠습니다.